



겨자씨.

거룩한빛
광성교회
안양교로

사랑 말씀 행함 능력

2023
AUTUMN
VOL.48

08 인터뷰 곽승현 위임목사

‘감사’로 달리는 86일
‘거듭난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

마음 근육 튼튼하게 키우기 4

21 공허하고 외로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법
안중화
23 역경을 성장으로 이끄는 회복탄력성
이소영



그러며 꽃 피는 것이다

| 신호철

흔들린다고
단단하지 않은 건 아니다
흔들린 만큼 단단해지는 것이다
꽃도 흔들리며 피고
갈대도 목까지 누워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청청한 솔나무도 처음
여린 순 내밀고 흔들린 만큼
뿌리 깊이 내리는 것이다

내 어머니도 흔들리며 날 키우셨다
아픈 만큼 사랑하며 보듬으셨다
흔들리는 모든 것은 아프고 또 아프다
지나 보면 그 아픔으로
꺾이지 않고 자라는 것이다
그러며 푸르러지는 것이다
다만 견딜 만한 시간이 필요할 뿐
처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며 꽃 피는 것이다



· 시인
· 시집 『바람에 기대어』,
『물소리 같았던 하루』 외 다수
· 샘터문학상, 한용운문학상 수상
· 계간 『시와징후』 편집자문



2023 AUTUMN VOL.48

겨자씨.

C.O.N.T.E.N.T.S

02 PROLOGUE | 신호철
그러며 꽃 피는 것이다

04 VISION 23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 · 5대 비전

05 믿음·소망·사랑
추수감사절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 조정의 목사
들리는가, 개혁의 망치가
우리 마음 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07 2023 AUTUMN Special Theme
감사

08 테마 인터뷰 | 광승현 위임목사
'거듭난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

13 2023 선한사마리아인 맥추절 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14 선교, 더 깊은 연결 | 조이폴장년부
과테말라 비전트립
기쁨의 걸음을 걷다

18 THE 희망나눔 | 나비학교 신미자 팀장
"감사는 선택이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20 포커스 I 마음 근육 튼튼하게 키우기㉠

21 포커스 I 안종화
공허하고 외로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법

23 포커스 II | 이소영
역경을 성장으로 이끄는 회복탄력성

26 10월의 향기 I 박성택 목사
단기선교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28 국내선교위원회 여름사역 I 김희정 집사
주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32 분립개척 I 심교정 장로
교회 분립개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33 소회의 글 I 문상원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감사합니다!

34 3040 I 임정근 집사
고난 속의 감사

36 조금 특별한 예배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예배가 있었네 - 산업 현장 예배

38 성경 속 인물 초대
예녹

39 2023 특별기획 I 리더에게 길을 묻다㉡
리더에게 길을 묻다 - 정성진 목사

44 형제교회를 찾아서 I 세계로교회
두 번 새벽을 깨우는 세계로교회 장영호 목사

46 세계로교회 I 박진희 전도사
사랑과 기쁨이 있는 세계로교회 교회학교로
초대합니다

48 학생 기자 수첩 I 최아인
중학생으로서 쓰는 마지막 『겨자씨』

52 꿈담 I 초등3부
진정한 예배드리며 교회로 살아가고자
고백한 초등3부

53 꿈담 I 초등4부
'소명' 열매가 풍성했던 초등4부 열매마을

54 꿈담 I 중등부
여름수련회 '업로드'

55 꿈담 I 고등부
고등부,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56 청년광장

58 HOT ISSUE I 조희성
나무와 숲 학교, 그리고 하나님

60 청년, 100도 I 박지석
내가 원하는 일

61 청년, 100도 I 김신영
사역과 헌신 그리고 청년

62 이용주 기자의 교회 구석구석 포토스케치
만나와 메추라기 I 땀과 기쁨

64 열정
노아스쿨

65 문화산책

66 COVER STORY
행복여행

67 캘리그래피 I 이현미

68 명작 Review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70 영화
오토라는 남자

72 여행, 스토리를 담다
'뜨거움'을 소망하게 한 여행, 중남미문화원!

74 찬송가 산책
내 주는 강한 성이요

75 배워봅시다
수어

76 KS 단신 I 짧막하게 전하는 교회 소식

78 크로스로드

80 소개합니다
광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소개합니다

82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08



14



39



56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5대 비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세웁니다.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2023년 추수감사주일 10월 15일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한 해의 수확물과 추수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기독교의 기념일.

1620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 해 가을에 처음으로 거둔 수확으로 감사제를 지낸 데에서 유래. 수확 시기, 역사 경험, 축제 전통 등에 따라 나라마다 추수감사절 날짜는 상이하다. 한국교회 또한 범교파적으로 정한 날은 없으며, 거룩한빛광성교회는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다.

사랑이 풀풀 '꿈꾸는 나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맞이한 2022년 추수감사주일. 거룩한빛광성교회 '꿈꾸는 다음세대(이하 꿈담)'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6개 복지관에 과일을 전달하는 '꿈꾸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2023년 추수감사절은 10월 15일, D-9. 2022년 꿈담의 '꿈꾸는 나눔'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눌 곳을 찾아보자.



5대 비전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 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들리는가, 개혁의 망치가 우리 마음 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글 조정의 목사(유평교회 담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사건은 오늘날 종교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손꼽힌다. 오늘날 교회는 목숨 걸고 성경의 권위를 앞세워 급진적인 개혁을 이루어 낸, 종교개혁의 정신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다 [디모데전서 3:15]. 허약한 기둥과 불완전한 터는 언제나 집을 무너지게 만든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비와 바람과 창수가 하나님의 집에 부딪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곧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뿐이다 [마태복음 7:24-25].

죄인은 책임 전가에 능하다. 자기 죄를 들여다보기 전에 가정의 문제를, 자기 가정을 개혁하기보다 교회를, 교회를 새롭게 하기보다 어그러진 세상을 탓한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정확히 반대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검증한다. 마르틴 루터의 망치는 세상이 아닌 교회 정문을 향했다. 개혁은 안에서 밖으로의 방향성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자문한다. 그렇게 개혁된 구성원들만이 가정을 변화시킬 지혜와 능력을 갖춘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사랑한다. 자기희생적이고 열정적이고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존경하고 따른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본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공경한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견고히 세워진 가정이 모인 교회만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맛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성이다.

미 해군 대장 윌리엄 맥레이븐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불 정리부터 시작하라.”고 호소했다. 세상을 개혁하려는 지상 대 명령의 요구에 자칫 우리는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여기 분명한 진리가 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건 당신 자신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을 맹세한 당신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당신의 삶을 개혁하신다. 이것이 개혁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당신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바꾸어 가실 것이다. 교회 안팎의 많은 이가 교회를 걱정한다. 너무 심각한 부패로 인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개선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우리는 커다란 사회 체제와 교회의 구조를 단번에 바꿀 힘이나 지혜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시고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실 것이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고 있는 ‘당신’부터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 판에 개혁의 망치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나 자신의 개혁을 소망하며 루터의 망치를 휘두른다.
사진은 2017 미국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목회자 수양회 때
종교개혁을 기념하여 교회에서 만든 체험 부스에서

2023 AUTUMN Special Theme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23]

곽승현 위임목사

‘감사’로 달리는 86일, 은혜의 오아시스를 만나자

‘거듭난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

글 전영의 기자 인터뷰 사진 영광홍 영상 실장

산 신앙과 죽은 신앙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다며 사막의
꽃이 오아시스이듯, 신앙의 꽃은 감사라고 곽승현 위임목사는 말한다

2023년 달력이 3장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맘때면 한 해 결실의 윤곽이 드러난다. 시작은 화려했어도 끝은 별 볼 일 없는지, 시작과 마찬가지로 끝도 훌륭한지. 늦지 않았다. 10월은 중도에 부러져 미완으로 끝나가는 꿈은 없는지 되짚어 보고, 2024년을 구상하기에 딱 좋은 시점이다. 86일이 있다. 한 해는 문을 닫고 또 한 해는 문을 여는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그 시간 속에 무엇을 담을까? 두 해의 무게를 지탱할 강력하고 아름다운 주춧돌이 필요하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 공사가 부실하면 기둥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 집은 무너진다. 흔들리거나 무너짐 없는 86일을 세우는 가장 튼튼한 주춧돌,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곽승현 위임목사는 말한다.

‘감사’는 ‘표현’해야

자기계발서, 각종 강연 등의 인기 주제 중 하나는 ‘감사’다. 감사가 왜 이토록 뜨거운 화두일까?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부까지도 내게 왔다.”며 25년간 진행했던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자신이 단 하나 가져가야 할 보물은 ‘감사’라고 했다. 또 과학자 뉴턴은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그것은 ‘감사’이고, 감사는 행복을 끌어당긴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서적 안정, 우울증 극복,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등 감사의 효능은 수없이 많다. 그러기에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며 감사 습관을 기르는 사람도 있고, 약 대신 ‘감사 요법’을 처방하는 의사도 있다.

“‘감사’는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요. ‘사랑’이란 단어 대신 ‘감사’를 넣어 보세요. ‘감사는 표현하기 전까지 감사가 아니다.’ 표현해야 비로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한 곽승현 위임목사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근본적인 감사가 있음을 말했다.

“‘거듭난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

도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어 곽승현 위임목사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의를 행하며 감사를 뜨겁게 표현한 감사의 두 거장을 소개했다.

감사의 거장들-다윗: ‘감사’로 광야의 시간을 이겨 내다

골리앗을 물리쳐 전쟁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피와 유랑을 일삼았던 다윗. 거듭되는 살해 위협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끝말은 ‘감사’였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항상 감사가 묻어납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고난, 눈물, 원망, 한탄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뒤통수를 친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했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감사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윗은 감사로 광야의 모든 시간을 이겨 냈습니다. 저도 그런 다윗을 담고 싶습니다.”

비천한 목동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맘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고,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언약을 받은 다윗. 그 축복의 원천은 ‘감사’였고, 그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곽승현 위임목사는 말한다.

감사의 거장들 - 손양원 목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를 노래하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 그의 ‘감사’는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반란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는 아버지로서의 비통함 대신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올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특히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와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일곱 번째 감사 제목은 놀랍기 그지없다.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두고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의 인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감사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 후, 손양원 목사는 아들을 죽인 범인이 잡혀 총살당하게 되자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라며 통곡했고, 이후 그를 구명하여 양아들로 삼았다. 그 양아들은 목사가 되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손양원 목사다.

교회를 180도 바꾼 ‘감사의 기적’

곽승현 위임목사는 충주 총일교회에서 첫 담임을 했다.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목회 포부를 안고 달려간 총일교

회의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성도들 간의 분쟁과 대립, 그로 인한 상처로 교회는 아프고 암울했다. 교인들 사이를 오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고 점점 초임 담임목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당시는 분명 저에게 광야였어요. ‘잘못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힘든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교회에 왔는가? 내가 왜 이런 힘든 것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원망과 불평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을 보니 교회 곳곳에 감사거리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곽승현 위임목사는 즉시 일어나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의 물결 위에 ‘알파’의 닳을 내렸다.

알파 사역은 총일교회에 오아시스가 되었다. 물 한 방울 없는 거대한 사막을 한 점에 불과한 오아시스가 생명의 땅으로 견인하듯 알파 사역은 균열이 간 총일교회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 것 같았어요. 한 방에 산허리를 뚫은 다이너마이트처럼 알파 사역은 교회를 분열시켰던 오해, 미움, 대립, 갈등의 뿌리를 순식간에 뽑아냈습니다.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안아 주었습니다. 알파 사역이 낳은 성령의 불씨는 주일예배, 금요기도회, 각종 소그룹 모임으로 번져 교회를 180도 바꿨습니다. 1년에 새 신자가 100명 이상 왔고, 정착률 또한 90%가 넘으면서 교회는 매년 부흥했고,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 갔습니다.”

힘들고 원망스럽고 아픈 것에만 몰두해 있을 때는 담임목사로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지만 ‘감사’를 회복하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으며 ‘감사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한 기회였다고 곽승현 위임목사는 말한다.



☞ 충주 총일교회 ‘알파’ 프로그램. 성령 체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신앙생활에 영적 활력을 되찾게 하는 ‘알파’는 균열 간 총일교회를 하나 되게 했다. 이미경 사모가 진행하고 있다



☞ 거룩한빛광성교회 ‘알파’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찬양으로 사랑을 나누는 곽승현 위임목사와 이미경 사모. 총일교회에서 알파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곽승현 위임목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도 ‘알파’에 많은 열정을 쏟고 있다

2023년 감사 제목 5가지

‘2023년 거룩한빛광성교회 감사 제목 5가지’를 묻자 곽승현 위임목사는 다음을 꼽았다.

1 선교, 더 깊은 연결	12개 교구에서 155명, 청년부 30명, 조이풀장년부 10명 등 195명의 성도들이 거룩한빛광성교회 파송·협력 선교사의 선교지를 방문하여 선교 활동을 후원하고, 사랑을 선물할 수 있어서 감사. 기도, 물품, 후원금으로 선교 활동을 도운 모든 성도에게 감사.
2 28번째 교회 분립개척	2024년 1월 7일, 28번째 교회를 분립개척할 수 있어서 감사. 거룩한빛광성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로서의 소명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
3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지속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4번의 절기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기부하는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4년째 지속하며 나누는 교회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어서 감사.
4 시니어 사역 활성화	3년 넘게 문 닫았던 노아스쿨 개강과 함께 ‘광성파크골프선교팀’, ‘아보트학교’ 등의 시니어 프로그램이 뿌리 내려 시니어의 인생 2막을 지지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 것에 감사.
5 훌륭한 스승, 좋은 부교역자, 역동적 교인과의 만남	한국교회 거목과 같은 정성진 목사님 후임으로 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이 된 것에 감사. 좋은 부교역자들 만나 목회의 기쁨 얻을 수 있어서 감사. 하나님 일에 역동적인 교인 만나서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얼마나 ‘표현’할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을까?

좋은 일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 광승현 위임목사는 이런 초보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 다윗처럼 해 볼 것을 권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함, 서운함 등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토해 내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를 발견하게 된다고.

“제가 ‘감사’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총일교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변화된 그 세계를 보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는 쉽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해서 감사의 고수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오아시스를 꼭 만나기 바랍니다.”

사하라 사막 지표면 아래는 1년 동안 지구에 내리는 비보다 200배 많은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한다. 지하의 물을 어떻게 지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그것이 사막을 생명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사막에서는 물이 있을 것 같은 곳을 파 인공 오아시스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오아시스 주변에는 푸른 생명이 싹트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농사를 짓고 마을을 형성한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키워 낼 수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다. 물이 닿는 곳마다 사막이 생명을 품은 땅으로 다시 태어나듯 감사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생명수다.

‘숨 쉬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맑은 하늘 감사, 가족 감사, 이웃 감사, 아침 감사...’, 그리고 ‘그럼에도 감사’.

86일 동안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자. 하나님께, 이웃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루에 3번, 10번, 50번... 매 순간.

그리고 기대하자. 86일의 기적을.

그 끝에서 만날 감사의 오아시스를.



☞ ‘선교, 더 깊은 연결’발대식. 광승현 위임목사는 교인 195명이 해외 선교지를 직접 찾아가 사랑을 전한 ‘선교, 더 깊은 연결’을 2023년 최고 감사 제목으로 꼽았다



☞ 노아스쿨, 광성파크골프선교팀, 아보트학교 등 시니어 사역이 활성화 된 것 또한 올해의 감사 제목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2023 선한사마리아인 맥추절 프로젝트

맥추절 헌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역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맥추절 헌금을 흘려보낼 대상자를 지정

·이렇게 지출했어요

항목별 지원 내용			지원금액
범위 지정	한부모	해피월드 통해 지원	13,385,000원
	다문화		
	노인		
	노숙인		
	장애인	농인성경골든벨 지원	9,000,000원
	청년	청년 창업 재정	1,968,000원
수해 피해 교회 지원			10,000,000원
아프리카 이주민 공동체 및 의료선교 지원			11,000,000원
기관 지원 : 라이프호프 중앙본부			1,000,000원
교인 지정 대상자			15,577,000원
작은교회, 선교사, 외부 지정 대상자			8,320,000원
교구, 부서 추천 가정,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영어예배부 추천 가정			40,000,000원
합계			110,250,00원



충북 수해 피해 교회 지원



아프리카 이주민 공동체 ‘조이하우스’ 지원



조이풀장년부 과테말라 비전트립 기쁨의 걸음을 걷다

글 & 사진 정경희 집사



과테말라 선교 준비

올해 2월 조이풀장년부는 과테말라 선교팀을 모집했습니다. 처음 광고를 들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반대편 중남미에 위치한 먼 나라에, 혼자도 아니고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이풀장년부 세 가정을 과테말라 선교팀으로 초대하셨습니다. 3월부터 김민혁 목사님을 포함, 총 10명이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붙잡고 ‘기쁨의 걸음을 걷다’라는 주제로 다섯 달간 과테말라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8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비행기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8월 6일 주일부터 뉴스에서 10일 아침까지 태풍 카논의 영향으로 비행기가 결항될 수 있다고 해서 선교 출발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조이풀장년부 모든 지체와 과테말라 선교를 위한 중보 팀원들은 온라인 기도회를 열고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염려, 불안, 걱정을 뛰어넘어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마지막까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태풍의 속도를 늦춰 마침내 저희는 예정대로 과테말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출발

저희 선교팀은 인천 - 도쿄 - 멕시코를 경유, 40시간 만에 과테말라에 도착하여 박배관, 송지혜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 여정에 어린아이들을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저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긴 비행을 마치고 즐거움과 기대감, 기쁨으로 과테말라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도착 첫날

도착 첫날, 저희 선교팀은 과테말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날씨,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며 먼저 다가오는 과테말라 사람들 덕분에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팀은 긴 비행 시간의 피로를 풀어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선교 사역의 시작 예배로 과테말라 선교 첫날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과테말라 국립대학교 의과대학과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CCC 리더들을 과테말라 한인교회인 선한목자교회에 초대하여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한국 전통 놀이를 하는 문화 선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 리더들을 격려하기 위해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분들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인교회 사모님은 저희 팀이 준비한 음식을 드시며 20년 동안 과테말라에서 많은 선교팀을 보았지만 자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는 선교팀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의 사역과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과테말라 땅에 한국교회 이름으로 들어온 첫 번째 단기 선교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은 현자인 리더들과 한인 사역자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자리에 저희를 사용하셨습니다.





기아대책센터 방문

계속해서 저희 선교팀은 과테말라 시티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한 기아 대책센터를 방문하여 그 지역의 아이들 150명과 함께 찬양하며 뛰어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채와 팔찌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담아 선물하며 사역을 마쳤습니다.



노방전도

다음날 저희는 박배관 & 송지혜 선교사님의 사역지 확장을 위해 문이 굳게 닫힌 USAC 대학교 정문에서 땅 밟기 기도를 하였고 의과대학 캠퍼스와 현지 쇼핑몰을 방문하여 노방전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과테말라 사람들이 저희 선교팀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며 먼저 다가와 말도 걸고 사진도 함께 찍자며 반겨서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수월했습니다. 박배관 선교사님은 이런 과테말라 영혼들을 보며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며 현지 상황을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저희 선교팀은 주일 예배를 위해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김민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곳의 아이들에게 한국의 학용품들을 선물하였고, 특히 저희가 만들어 간 예수님 형상과 사진을 찍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예배와 사역

그리고 예배 후에는 과테말라의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고 있는 건축 부지로 갔습니다. 학교 건축 부지를 밟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테말라 선교의 마지막 사역으로 과테말라 시티에서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여 산호세 마을에 위치한 반석교회와 초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들을 기증하며 그곳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어져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하고, 이 아이들이 과테말라를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미래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한국으로

과테말라 선교팀은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며 다시 또 '과테말라 - 멕시코 - 도쿄 - 인천'이라는 긴 여정을 거쳐 한국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가장 먼 선교지를 가장 어린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였지만 처음의 걱정이나 우려와는 달리 저희 선교팀 모두는 그곳에서 환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각 가정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만지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자녀가 서로 연합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현지 사역에 동역했지만 선교사님들께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며

헌신하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의 시간들을 통해 저희 선교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던 과테말라 선교를 마치고 이제 저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각 가정에게 부어 주신 마음, 말씀, 은혜를 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잘 흘려보내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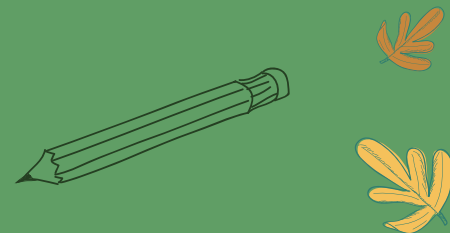




“감사는 선택이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비학교 신미자 팀장

글 전영숙 기자



«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을 부여잡는다는 신 팀장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바를 이루게 됐을 때 감사가 절로 나온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감사는 커녕 불평, 불만이 안 나오면 다 행이다. 그러다 보니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라고 푸념하기 일쑤다. 그런데 하루를 감사로 마감하는 것을 10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는 이가 있다. 나비학교(나를 찾아 비상하는 학교) 신미자 팀장이다.

“2015년에 나비학교 1기를 수료하고 난 뒤 많은 위로와 공감을 받으면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록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서 내 감정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됐죠.”

사람마다 누구나 다른 이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연약한 구석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다. 신 팀장도 그랬다. 갱년기에 찾아온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것. 겨우 회복됐지만 나비학교가 개설된 순간 ‘내가 해야겠구나.’ 싶었고, 나비학교 교육 과정 중에 ‘나의 감사 제목을 찾아보자.’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QT와 함께 감사일기를 쓰기 시

작했다. 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2기 때부터 스텝과 임원으로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2019년에는 팀장까지 맡게 됐다. 이때부터 감사일기 쓰는 것에 새로운 불이 붙었다. 이전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힘들 때는 일기도 QT도 건너뛴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끌어내게 된 것은 불과 2년 전부터다.

“괜찮아진 것 같아 임의로 약을 끊으면서 우울증이 두 번이나 재발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감정에 휘둘러 살았더라고요. 제 기분에 속고 산 거죠. 감정일기도 써 봤더니 감정 기록이 커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꼭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럴 때 ‘어머, 내가 왜 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어.’라고 여겨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다 다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일 경우 마음이 가라앉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올봄부터 ‘내적 치유’ 훈련을 받고 있는 신 팀장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은 그냥 수용하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 2015년부터 써 온 감사일기장이 책장 한 칸을 가득 메웠다



« 감사는 선택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준 흔적들

고 강조한다. 안 좋은 상황이지만 보이지 않는 뒷면에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 감사거리를 끄집어내야 한다면서 ‘감사는 선택이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나의 이성을 사용해서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나비학교 8기 과정을 마치면서 있었던 일이다. 교구별 선교대회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면서 3주 차에 가는 소풍이 장마 기간과 겹쳐버렸다. 좋은 날씨 주시마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 폭우 예보에 날짜를 옮겨 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신 팀장은 순간 다섯 가지 감사가 생각났고 ‘안전한 소풍 감사, 자연 안에서 우리의 작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 기억에 남을 추억됨에 감사,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스텝 단톡방에 올렸다. 물론 상황은 불변이었다. 비가 ‘역수로’ 내렸다. 버스 기사가 진짜 가냐고 반문할 정도로. 그런데 비와 상관없이 신나서 사진을 찍었던 참가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멋진 사진과 추억을 남기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됐다. 소풍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많이 어려웠죠?”라는 담당 목사의 위로에 신 팀장이 “이 비는 우리 인생에 ‘끔’이에요.”라고 답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가 깊이 뿌리박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매일 감사한다고 하니가 그럼 뭐 바뀌었나? 하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각자의 삶을 잘 살고 있더라고요. ‘믿는 자에게 말씀, 기도, 예배면 되지.’라고 하는데 꾸준히 교육, 훈련에 임하는 분들을 보면 성품이 달라요. 우리 스텝들만 봐도 말없이 일하는데 성숙함이 묻어나요. 실천하려고

해야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의 홍콩 주재원 시절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목장 식구들 덕에 하나님을 만나, 2003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성적으로 봉사해 매진했다. 하나 6년 만에 번아웃되어 무너지면서 도망치고 숨고 싶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신 팀장은 자신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공동체에 감사를 전한다. 든든한 자원군인 가정 공동체, 위로 받고 공감 받는 목장 공동체, 참가자들의 간증에 가랑비에 옷 젖듯 감사 넘치는 나비학교 공동체, 이 세 공동체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거라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끌어내는 것, 그 비결은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는 신 팀장의 말에 동감의 탄성이 나왔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그걸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 아등바등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주는 나를 통해.



« 나비학교를 통해 위로와 공감을 경험한 신 팀장은 또 다른 이에게 이를 전하고 있다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 ‘마음’

마음 근육 튼튼하게 키우기 4

공허하고 외로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법

내 안의 감정을 홀로 두지 말고,
그 감정을 담고 있는 몸을 탐색하는 것으로
연결하면 깨달음과 치유와 회복

글 안종화

역경을 성장으로 이끄는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같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타인과의 상호의존을
통해서 형성

글 이소영



공허하고 외로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법

글 안종화(은빛심리상담센터 원장)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공허함이나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정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 이런 감정들을 무수히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을 때, 어떤 태도로 이런 감정들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환영하고, 머물러 보기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나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이러한 감정들은 반가운 감정들이 아니라서,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피하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런 감정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잠을 청하기도 하고,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등 방송 매체들을 보기도 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기도 하고, 자신은 마치

이런 감정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자신의 즐거운 모습을 활발히 게시하기도 하고, 자주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피하지 말고 다른 태도로 대한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공허함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고 외로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피하지 말고 가만히 눈을 감고 그 감정들에 머물러 보세요.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조용한 장소에서 이러한 감정들이 가만히 거기에 있도록 허락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머물러 봅니다.

이 감정에 머물면서 내 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세요.

머물러 보면, 내 몸은 여러 가지 말을 나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혹은 내 몸 어디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그 감각은 어깨가 무겁다든지, 가



숨이 답답하다든지, 내 몸이 전체적으로 긴장이 되는 것 등). 혹은 몸의 어떤 부분(팔, 다리, 어깨, 머리 등)을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A 씨는 늘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 감정에 머물러 보려는 마음을 먹고 1분 정도 그 감정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이 넓은 세상에 자신만이 혼자 살고 있다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A 씨는 늘 혼자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살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았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다투고 싸우는 장면을 많이 봐서 그럴 때마다 자기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았고, 무섭고 두려워하던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아이의 감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다. 그래서 아이는 긴장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그 때부터 ‘나는 혼자구나.’ 하는 느낌이 늘 자신 안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리고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은 비갈로 표현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외로움, 공허함, 불안함, 공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A 씨가 가진 공허함, 외로움은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혼자라고 느끼는 그 아이에게 A 씨는 조용히 다가가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난 네 편이야, 내가 너를 지켜 줄게.’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외롭고 무섭고 공허한 느낌에서 풀려나고, 자유로워지는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세상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연이어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아이는 세상과 연결된 것을 느끼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동안의 긴장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예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내 안의 공허함, 외로움은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나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환영하고

받아 주고 머무르면 나에게 여러 가지 말을 걸어옵니다. 이처럼 내가 느끼는 그 감정에 머물러 보면 내 몸은 여러 가지를 내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적 경험들을 발견하는 데에 관심을 두기

우리의 몸은 지혜롭습니다. 몸은 나의 소중한 부분이기도 하고, 마음과 연결되어서 마음과 상호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감정들과 내 몸을 연결해 보세요. 어떤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에 머무르면서,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세요.

내 몸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경험들(불편한 생각, 감정, 이미지, 신체 감각,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욕구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머물러 보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몸의 움직임에 따라 몸을 신뢰하고 몸이 경험하는 것을 따라가 보세요.

우리의 몸은 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몸의 언어는 내 안에 있는 기쁨, 슬픔, 공허함, 외로움, 다양한 어려움을 긴장, 움직임, 몸짓, 자세, 숨, 리듬, 운율, 표정, 감각, 생리적 각성, 걸음걸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됩니다(감각운동 심리치료, 하나의 학사).

내 안의 감정을 홀로 두지 말고, 그 감정을 담고 있는 몸을 탐색하는 것으로 연결하면 놀라운 깨달음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피하려고 했던 그 감정 덕분에 더 단단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면 깨달음과 치유가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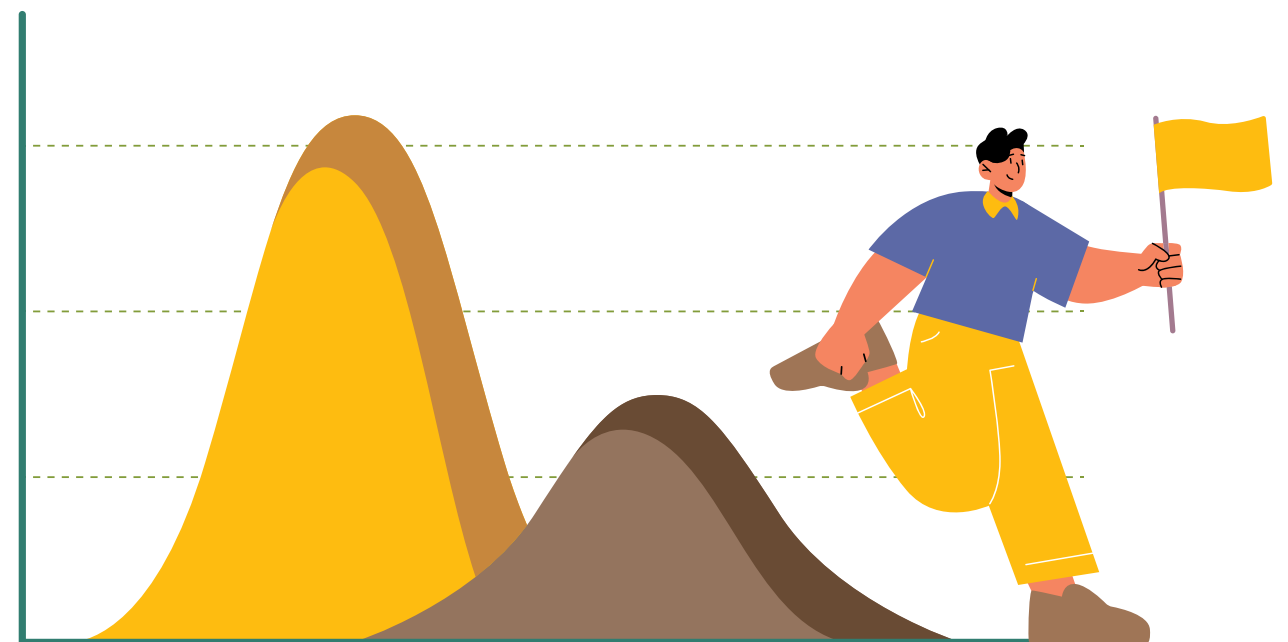
역경을 성장으로 이끄는 회복탄력성

글 이소영(광성심리상담센터 상담 목사)



회복탄력성의 발견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발견은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진행했던 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1955년에 한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불운이 모두 모여 있는, 가난한 섬인 카우아이섬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20년을 연구해도 그다지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이 연구의 자료 분석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심리학자 워너(Emmy Werner)는 전체 연구 대상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고위험군 201명을 추려 냈다. 그러나 그중에서 1/3가량인 72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숙하고 자존감이 높았으며, 성격이 밝았고, 대인관계가 좋았으며 성적마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을 보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를 바라보게 되었다. 72명에게 역경을 이겨 낼 수 있는 어떤 공통적 속성이있음을 깨달았다.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 속성을 워너는 ‘회복탄력성’이라 불렀다.





믿어 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역경을 이겨 내는
회복탄력성은 증폭된다

위기에 처한 내담자들

필자 또한 역경에 노출된 내담자들을 만나 왔다. 백혈병이 걸린 내담자, 배우자의 외도로 배신감에 분노하는 내담자, 아버지의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양육 방식으로 고통받는 내담자, 전학 후 새로 사귄 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내담자, 감당하기 어려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시도를 한 내담자, 남편의 자살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내담자 등이 자신들이 겪은 다양한 위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내담자들은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비관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을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대 배우자 혹은 부모에게 분노하고, 결국 좌절하고 우울해하며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아가 약해진 내담자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인관계를 회피하다가 결국 모든 관계에서 철수하여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며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는 내담자

필자가 “그런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라고 물으면 위기에 처한 내담자 대부분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이야기했는데 수용 받는 경험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내담자 중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학교를 무단결석하고 자퇴 후 자살 시도까지 했던 내담자를 소개하려고 한다. 필자는 내담자의 학업 이야기, 친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내담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잘했다. 반듯하고 착한 딸로 부모에게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첫째 딸이길 원하였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는 다르게 계속 떨어지는 성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며 좌절하였고 절망하였던 내담자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였다. 상담사에게 이해받고 수용 받는다고 느낀 내담자는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마음을 엄마와 가족들에게 말할 힘이 생겼고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말하였다.

“그날 엄마가 날 꼭 안아 주면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고,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다 하시며 우셨어요. 그리고 보고 있던 가족들도 괜찮다고, 공부보다 우리는 네가 더 소중한다고, 네가 행복하길 우리는 모두 바란다고... 공부 말고도 갈 길은 아주 많다고 하셨어요. 그때 내 가슴에 뭉클뭉클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를 꼭 껴안고 나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어요.”라고 고백하였다.

상담을 지속하면서 내담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담자는 분명히 자퇴서를 내서 당연히 자퇴 처리가 된 줄 알았는데 내담자가 대출한 책을 반납하지 않아서 자퇴가 보류되었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져 기쁘게 자퇴를 철회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일상을 다시 회복한 내담자는 “토요일마다 쌤이랑 얘기하고 나오면 마음이 항상 편했어요. 그리고 자존감도 엄청 올라갔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를 왜 보내셨는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찾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상담을 종결하였다. 현재 내담자는 자신이 원하던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건강하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위기가 성장으로

내담자는 이러한 위기를 성장으로 변화시킨 가장 큰 요인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지하고 언제나 믿어 주고 수용해 주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가족’이라고 말하였다. 40년을 회복탄력성을 연구한 심리학자 워너가 역경을 이겨 내는 회복탄력성의 여러 가지 공통적인 속성 중에서 중요한 하나가 바로 ‘나를 지지하고 믿어 주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회복탄력성의 특성은 역경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역경으로 인해 강점이 개발되어 고통스러운 상처가 치유되고 자신의 삶을 스스

로 책임지게 되고 자신과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같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타인과의 상호의존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지지적 관계에 의해서 촉진된다.

내담자는 가족과 상담자와 친구,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므로 회복탄력성이 더욱 촉진되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며, 좋은 성품을 기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마음과 몸의 활기를 찾았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용기를 내며 세상과의 연결감을 느끼게 되었다. 더 나아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되었다.

“역경은 나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내담자는 오늘을 감사하므로 성실하게 살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청년으로 성장하였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필자는 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역경을 극복하며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종교적 신앙에 바탕을 둔 회복탄력성인 영성 탄력성을 제안해 본다. 기독교인에게 역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결감은 전인적인 성장의 필수 요건이라고 여겨진다.



역경은 나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것

단기선교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글 박성택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텍사스에서 6촌고모(정명자 권사)와 함께 창단한 Texas Korean Christian Chamber 연주 모습

고모의 전화

1993년 2월 22일, 먼 친척 고모에게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조카 졸업 축하해!”라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나누던 대화 가운데 고모는 이제 졸업도 했으니 본인의 피아노 트리오팀에 합류해서 함께 미국 선교여행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막 졸업한 후라 취업과 대학원 진학에 마음을 쏟고 있던 때였지만 ‘이번이 아니면 또 언제 기회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아내와 기도하며 논의하다가 결국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의 여정이었지만 정말 많은 경험과 은혜를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여행 중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 유학에 대해서는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제가 미국 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것도 일반 클래식이 아닌 교회음악과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찬양의 힘

오콜라호마 로턴 한인침례교회에서 집회를 가진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오후에 집회 장소에 도착해서 리허설을 마치고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하고 집회에 임했습니다. 연주와 간증이 한참 이어지던 중 주위를 둘러보니 성도들이 하나둘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한둘이 아닌 거의 모든 이가 동시다발적으로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곳에서 15년을 사역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던 담임목사가 손을 들고 눈물로 고백하시는 모습에 모든 성도가 감동해서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찬양에는 이렇듯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듯 아름다운 하모니는 성령님도 춤추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1. 아내 이경희 사모, 딸 예인, 아들 예준
2. KBS 악단 악장을 역임한 장명자 권사는 순교자 김억두 목사의 외손자 며느리이고, 내게는 6촌 고모다. <새롭게 하소서> 출연 등 간중 집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크라우피쉬의 환상

또 다른 기억은 루이지애나 한인침례교회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루이지애나에는 늪지대가 많기에 크라우피쉬(민물 가재)가 다량 서식해서 사람들이 크라우피쉬를 즐겨 먹습니다. 그 지역의 특별한 요리법을 소개하자면 커다란 들통에 감자, 당근, 옥수수, 양파, 그리고 스페셜 루이지애나 가재 요리 소스와 크라우피쉬를 넣어서 푹 삶아 먹는 요리입니다. 교회 식당 테이블 바닥에 비닐을 깔아 놓고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크라우피쉬를 온 교인이 모여 정말 맛있게 먹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찬양집회가 시작되고 잠시 후 이전의 집회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줌아웃 되듯이 제 눈과 마음에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주님께서 제 손을 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소개해 주시면서 이민 생활 속에서 가졌던 그들의 아픔과 서러움,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곳은 루이지애나주 Fort Polk라는 동네로 아주 큰 보병부대가 있던 곳이었기에 군인들을 따라서 정착한 한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동네였습니다. 군부대 지역 특성상 남성보다 여성 성도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남편들은 대부분이 군 복무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같은 빌딩이었지만 한인 예배와 영어 예배가 분리되어 운영되었고 한 지붕 아래 이중 문화가 있었기에 쉽지 않은 특수 목회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서는 미군 부대 헌병대 무술교관을 역임한 한인 목사님이셨기에 이러한 이중 문화와 예배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셨고 아름답게 섬기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할 때 이때의 인연으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루이지애나를 떠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알칸소 주 핫스프링스에 도착해 멤버들과 잠시 쉼을 갖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틈만 나면 루이지애나 교회에서 만났던 성도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이후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



2

주님의 콜링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5월 초 선교팀과 함께 귀국해서 아내에게 그 동안의 일들을 나누던 중 루이지애나 한인교회 방문과 이후 마음에 남았던 부당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나, 하나님의 음악 공부를 더 해 보고 싶어. 혹시 알아? 내가 음악 목사가 될지?”라는 말을 던졌는데 아내가 듣고는 깜짝 놀라며 아무래도 제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것 같다고 함께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결혼 전부터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음악 목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를 위한 서원기도를 하고 있었습니 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치 오차도 없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어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미국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온 가족이 단 2주 만에 유학비자를 받아 사랑하는 아내와 둘이 갓 지난 딸 예인이와 함께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연천 원당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글 김희정 집사(국내선교팀)

2023년 7월 24일, 설렘을 안고 드디어 연천으로 떠나는 날.
국내선교팀을 비롯한 60여 명의 여름사역 봉사자들은
아침 일찍 나와 주신 박승현 목사님의 사역 봉사를 위한 기도를 받고
연천에 있는 원당교회로 떠났다.



첫째 날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이나 창고, 그리고 방충망 등 노후된 시설물을 고치거나 재정비하고, 또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청소와 말동무를 해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을 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불안했지만 '주님께서 어렵히 알아서 잘 도와주시겠지.' 하는 행복한 믿음을 갖고 나아갔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비는 안 오고 적당히 구름이 있어 우리는 힘들지 않게 첫날 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2

7월 25일, 둘째 날은 인원이 첫날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110명 정도가 참여했다. 의료봉사팀과 발 마사지팀, 미용봉사팀, 그리고 우리소리찬양단과 워십팀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마을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머리 손질도 하였고, 의료팀의 영양제를 맛고 행복해하셨다. 첫날에 이어서 둘째 날에도 뜨거운 불 앞에서 주방 봉사로 애쓰는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3

어제의 기가 막힌 날씨에 잠시 방심(?)했던 건지 둘째 날 오전에는 참으로 간만에 보는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다. 우스갯소리로 구명조끼 입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대피 방법을 상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11시쯤 비를 멈춰 주셨고 남은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4

여름 사역의 피날레 저녁 집회! 원당교회 김광철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 박승현 목사님의 기도 인도는 말 그대로 은혜와 감동의 순간이었다. 서로 나누고 베풀며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또 우리 교회에서 가져온 연천 원당교회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서로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맺음말

이틀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봤고 주님의 도우심을 느꼈으며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도 알게 되었다. 참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이런 감사와 기쁨,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교회 분립개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글 심교정 장로



2022년 분립개척위원회 발족

거룩한빛광성교회는 교회의 대형화를 지양하고 어느 정도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교회의 분립개척을 통해 재생산하는 교회입니다. 정성진 목사님은 1997년 교회 창립 이후 2018년 조기 은퇴 시까지 총 24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제2기를 출범한 이후 제11차 교회 규약 개정(2022년 7월)을 통해 분립개척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되었고, 열린당회의 결의를 통해 발족(2022년 8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만 장로(위원장)를 중심으로 총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분립개척에 대해 백지상태로 스타트하기에 ‘듣기(청취)와 소통’에 중점을 두고 시작하였습니다.

정성진 목사님의 강의와 박승현 위임목사님과의 면담, 이미 분립개척한 목사들(총 5명)과의 심층 대화, 타 교회 목사들(총 2명)과의 특별 인터뷰, 그리고 장로, 교역자 및 전교인 설명회와 위원회 워크숍, 10여 차례의 내부 회의를 통해 분립개척의 의미, 지원 내용, 후보자 선정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항들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후보 목사 선정 기준과 목회 전념을 위한 생활 지원, 동참 교인과 일정 기간 협력하는 마중인 제도, 인큐베이팅과 전문 지원팀 구성, 분립개척 이후 사후 관리 등 특별한 제도를 마련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장은 멈췄고
교회 크기가 양극화된 현실 속에서
분립개척은 교회 건강성을 유지하는
한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성진 목사

“교회를 건강하게 분립하고 개척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주신 사명이자
크나큰 축복입니다”

박승현 위임목사

문상원 목사 확정

2023년에는 분립개척 목사로 문상원 목사를 청빙하여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청빙 과정을 보면 분립개척위원회에서는 지원 목사의 의사 확인 및 위임목사 면담을 통해 2인을 추천받아 서류 심사(총 2회)를 거쳐 후보 목사 1인을 선정하였고, 이를 열린당회가 결의하여 문상원 목사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분립개척 지역과 교회 규모, 인테리어, 계약, 행정, 세무 절차 등 모든 과정은 분립개척 위원회와 문상원 목사가 함께 준비하도록 합니다. 2023년 8월과 9월에 동참 교인과 마중인을 모집하고, 전문 지원팀을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또한 2023년 10월과 11월은 인큐베이팅 기간으로 분립개척 교회 준비 예배와 교제, 그리고 기도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타 교회 방문과 여러 준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2023년 12월에는 분립개척 교회의 입당 준비 활동을 하고, 2024년 1월 파송 예배 후 새로운 분립개척 교회가 창립하게 됩니다.

또한 분립개척하는 교회에 대한 지원 내용은 재정적 지원과 인적 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재정적 지원은 초기 비용(1억 5천만 원 이내), 사례금(300만 원/월), 임대료(150만 원/월), 사택 보조금(100만 원/월), 차량 지원비(60만 원/월), 전도사 사례비(100만 원/월)로 2년간 지원하며, 인적 지원은 교육(또는 찬양) 전도사 파견과 전문 지원팀을 구성하여 협력하도록 합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감사합니다!

글 문상원 목사

그동안 『겨자씨』를 통해 제가 참 많은 지혜와 은혜를 누렸는데, 이렇게 『겨자씨』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우리 거룩한빛광성교회에 부임해서 사역한 지 7년 되었습니다.

아직도 연소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단독 목회에 대한 기쁜 마음과 함께 소망을 부어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척이든 청빙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7월 정기당회에서 제가 2024년 분립개척 목사로 결정이 되었고 8월 첫 주일예배에서 분립개척 목사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분립을 위해 박승현 위임목사님께서 늘 지혜와 배려를 더해 주시고 분립개척위원회 위원들께서 개척에 실제로 필요한 도움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챙겨 주고 계십니다. 또 정말 많은 성도님께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며 지금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이 분립개척 목사가 된 소감을 물으시는데, 솔직한 소감은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룩한빛광성교회를 통해 배워 온 건강한 목회 정신을 잘 계승하여 처음 경험하는 개척 목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주 안에서 매 순간 정신 차리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바른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7년 동안 목회하면서 매 순간 참 행복했습니다. 정성진 목사님께 건강한 목회의 정신과 행동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었고, 박승현 위임목사님께 목회의 열정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늘 격려와 기도로 힘을 실어 주시고 부족한 모습도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라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곳에서 넘치도록 받은 사랑과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바른 목회 잘 감당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 분립개척 워크숍(2022년 12월)



분립개척위원회 위원

위원장 김진만 장로

부위원장 임성기 장로

사무총장 심교정 장로

서기 최강훈 장로

위원

김범수 집사, 김성호 집사, 유창원 집사
윤미자 권사, 이영희 권사, 임은주 집사

임정근 집사 고난 속의 감사

글 우주희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 황금빛 논과 풍성한 오곡백과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인생을 네 계절에 비유할 때 이 중 여름을 지나고 있는 3040세대에게는 수확물이 아직 없을 수 있다. 수확은 고사하고 모진 태풍을 만나 정을 주며 가꾸던 열매를 모두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원텐텐 가정예배 PT학교 2기’ 수료식 현장에서 간증으로 많은 사람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임정근 집사님을 만나 보았다.

사업 실패와 중증 우울증

임 집사님은 2019년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현재는 시온찬양대와 라라중창단에서 부부가 함께 섬기고 있다. 2012년 결혼 후 2014년부터 약 4년을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아 이때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되었다. 이후 2018년, 일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학원 사업을 크게 하다 갑작스럽게 코로나를 만나 망하게 되었고, 병행하던 온라인 사업까지 상황이 나빠지면서 소위 말하는 화병이 찾아오게 된다. 우울증 관련 치료 약은 다 먹어 봤을 정도이며, 그중에는 중독성이 있는 마약 성분의 약까지 있어서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도



⌘ 2023년 8월 7일 월요일 가정예배 사진(중)

했다. 당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극에 치달아 분노의 수준으로까지 넘어갔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삿대질은 몇 년간 지속되었다. 깊고 어두운 수렁에서 나올 수 있도록 손길을 내민 것은 아내인 정연하 집사님이였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

교회에서 지난 5월 말부터 6주 동안 ‘원텐텐 가정예배 PT학교 2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정 집사님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에 무조건 참여할 것을 강권했는데, 임 집사님은 일주일 중 유일하게 쉬는 토요일에 무슨 짓이냐고 반대를 했다. 결국은 아내 집사님의 성화에 못 이겨 시작하게 되었는데, 3주 차부터인가 임 집사님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다시 회개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실 테니 그냥 믿고 감사하자는 온유의 물결이 제 마음속 견고하고 완악한 벽을 해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이 분노의 극점을 찍었을 때, 강권적으로 가정예배 학교로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다. 집사님은 그 강제성이 오히려 편안한 이끌림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운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 가정 내 기억의 리마인더 공간

인생을 관통하는 감사

임 집사님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셔서 주말 부부로 살고 있다. 그럼에도 매일 같이 줌으로 온 가족이 만나 하나님을 예배한다. 줌에서 제한을 둔 40분의 시간을 다 채울 정도로 열심이다. 가정예배 본문이 끝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세 가지 감사를 찾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소소한 하루의 감사들이 모여 종국에는 인생을 관통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

“찬양사역자 함부영 씨의 ‘나의 노래’나 ‘길’ 같은 노래 가사는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또 한 단계 성숙했네.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선포

우리가 살아 내는 것은 동화가 아니라 현실인지라 집사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발등에 떨어진 큰 불과 강도 높은 정신과 약물을 끊어 낸 후유증으로 인한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늘 이기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도 공존한다. 그러나 끝없는 어둠의 터널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도 임 집사님은 믿음으로 선포한다.

“요새 가정예배 마무리 기도에서 제가 항상 어둠의 터널이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터널 끝에서 밖으로 건져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그렇게 선포 기도를 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 집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희망의 빛이 마음을 밝혀 주면 현실이 어두워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이 그냥 깨우쳐졌어요.”



⌘ '원텐텐 가정예배 PT학교'에서

가정의 비전과 기도 제목

정연하 집사님은 시련 속에서도 끝없는 신뢰와 격려로 임 집사님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신뢰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저를 무한 신뢰해요. 고마운 것은 대학원 석사 시절 논문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삶의 힘든 구간마다 아내는 끊임없이 제 편이었어요. 생활 속의 응원이 계속 쌓이는 거죠.”

임 집사님은 정 집사님과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언젠가는 전국을 유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산다. 먼저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길, 또한 자녀 시현이와 시윤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완전한 신앙 인격체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금전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주시길 기도하는 임 집사님. 믿음을 선포하며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임 집사님의 삶과 가정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기대한다.



⌘ 지난 6월 대전 장태산에서 찍은 가족사진. 임정근, 정연하, 임시현, 임시윤



그곳에 예배가 있었네 산업 현장 예배

글 김형수 기자

궁금했습니다. 해외 산업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금지된 국가라면? 보안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환경이라면?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예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뜨거운 열망으로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중동 각 지역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인근 산업 현장 예배를 이끄신 박종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질문 1 중동 지역 산업 현장 예배의 역사를 알려주세요.

1970년대 중반부터 중동 각국에 많은 건설 노동자가 중동에 진출했습니다. 사주나 현장 소장이 교인인 경우 현장에 기도회나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현장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설(빌딩이나 주택 건설) 경기가 쇠퇴하면서 대부분의 한국 업체가 철수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귀국했고 교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떠난 땅에 발전소나 석유화학단지 등을 건설하는 대기업 소수 고급 기술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교회를 원했지만 믿는 성도가 현장당 보통 10명에서 30명 정도이고 보안이 몹시 까다로워서 쉽게 목사나 전도사를 초빙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서 인근 한인 교회 목사들이 평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산업 현장 예배는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기존 교회 예배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금요일이 그곳 공휴일인 까닭에 매주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회사 회의실 등을 이용하다가 장로이신 S개발 회장이 사비로 작은 예배 처소를 마련해 줘서 이후엔 주변 다른 현장까지 돌아가면서 예배 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엔 피아노 등 악기가 없어서 무반주 찬양을 했는데 최근에는 제대로 된 음향 시설을 마련하여 찬양단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참 열정이 타오를 때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서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질문 3 산업 현장 예배의 현실은 어떤지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환경은 매우 열악하지만 열정은 대단히 뜨겁습니다. 한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처음 S건설 예배 현장을 찾았는데 30명이 넘는 성도가 자

리를 지키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찬송을 하자 몇 명 밖에 따라 부르지 못해서 그제야 이들이 믿음은 없지만 외로워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수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이가 주님을 영접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 일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헌금을 나눌 곳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선교로 향했습니다. 성도들이 1년간 헌금을 모아 페루에 교회를 세웠을 때 모든 성도가 아이들처럼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수단 내전 때 우간다 난민 캠프에서 수많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한다는 선교사님 간증을 듣고는 성도들 스스로 모금을 하여 난민 캠프에 조산원을 세웠을 때도 감동이 컸습니다. 지금도 현장 교회는 캄보디아에 집을 지어 주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 주고, 학교를 단장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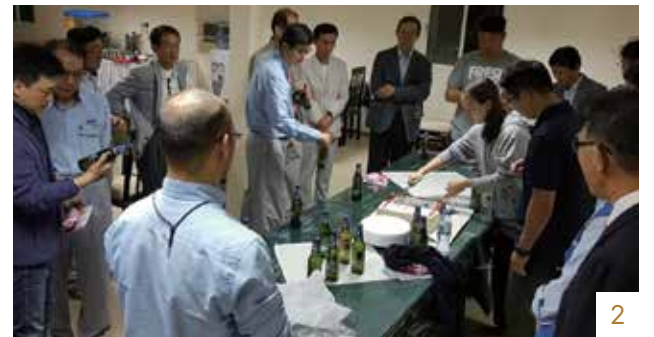
질문 4 산업 현장 예배의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현지인 전도와 접촉은 엄격하게 금하는 아랍권이라서 어려움이 많지만 현장 교회는 생각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현장 교회는 초교파, 초교단 교회입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다름보다는 선교로 하나 됨을 이룬 뜨거운 교회입니다. 또한 목사 사례비도 없고 기타 경비도 필요하지 않으니 모든 헌금을 오롯이 이웃 사랑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큼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후 나눔에 대한 1대1 양육이 가능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삭막한 현장 때문인지 성도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솔직한 고백을 함으로써 영적 성장과 재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현장 교회를 어디로 이끄실지 기대가 매우 큼니다.

보안 때문에 외부 촬영이 금지되어 사진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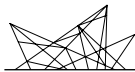


3

1. 산업 현장 교회 찬양단
2. 산업 현장 교회 추수감사절
3. 산업 현장 교회 캄보디아 봉사 활동

✧ 산업 현장 교회 캄보디아 봉사 활동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글 강혜미 기자



✎ 에녹과 엘리야. 17세기 성인들을 그린 그림인 이콘으로 폴란드 사복역사박물관 소장
(사진 출처 - dustoffthebible.com)

아래의 아들인 에녹(Enoch)은 아담의 7대손으로 그 이름은 ‘순종하는 자, 바친다,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천지만물의 창조에 이어 아담과 하와의 등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 등 워낙 유명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창세기 5장에 이르러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하는 내용이 지루하게 반복된다. 그런데 21절에 등장하는 에녹은 단순히 ‘죽었다’는 표현으로 끝나지 않는다.

²¹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²²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²³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²⁴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21~24]

어째서 계보에 등장하는 다른 이들과 같이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 단순히 문학적 수사일까?

⁵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5]

에녹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탈피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다시 말해 그는 죽음, 즉 사망에서 면제되었다.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창세기 5장 23절과 24절에 연이어 기록된 ‘하나님과 동행하며’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에 대해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에녹은 믿음을 가진 자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그 상으로 죽음을 면제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된 인물은 에녹과 노아 단 둘뿐이다. 또 죽음을 면제받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기록된 인물 역시 에녹과 엘리야가 유일하다. 이 모두에 이름을 올린 에녹은 무려 삼백 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할 때에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향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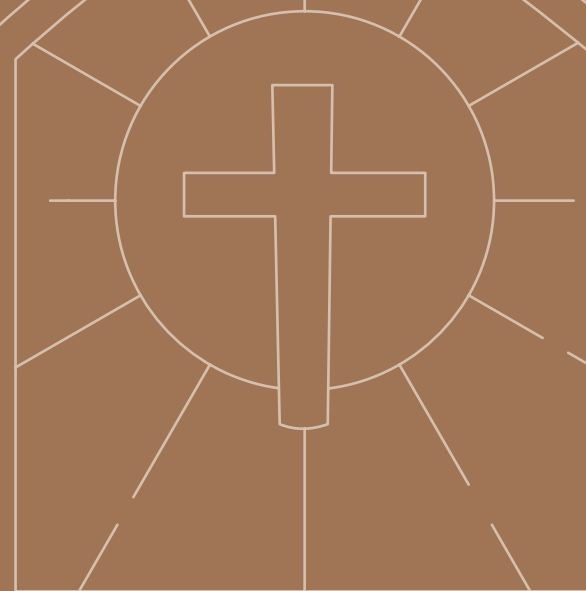


리더에게 길을 묻다

기획 김형수 기자 인터뷰 사진 조희성 기자

3년의 공포와 고통,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었음에도 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이가 예배 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시련을 딛고 다시 힘을 내기 위해 『겨자씨』는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물었습니다. 사실 정답은 ‘예수님 닮은 삶’ 하나뿐이었는데도 우리는 많은 우문(愚問)을 던졌고 리더분들은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정성껏 헌답(賢答)을 전해 주셨습니다. 장신대 김운용 총장님, 한국기독교학생회 정재식 대표님,故 옥한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특별기획 ‘리더에게 길을 묻다’를 마무리해 주실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겨자씨』는 정성진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리더에게 길을 묻다

1 목사님께서 과거 거룩한빛광성교회 시절, 당회 개혁, 교회 분립, 재정 공개, 구제 사역 확대 등 많은 개혁을 주도하셨습니다. 이런 개혁을 주도하셨던 근본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또는 가장 절실했던 개혁 과제는 또 무엇이었나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교회 개혁을 위해 살던 집을 내놔서 17번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가난에 대해 조기 교육을 받은 셈이죠. 제가 살아온 길에 대해선 성도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니 자세한 얘긴 생략하고요, 아무튼 일찍이 가난을 경험하기도 했고 민중신학을 공부하기도 해서 가난한 이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퇴



☞ 정성진 목사



☞ 섬기고 나눠야 합니다

락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개혁을 위해 남보단 저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가족을 벗기면 피가 튀지만 자기 가족을 벗기면 탈피가 되면서 성장하잖아요. 이를 위해 전문가들에게 교회법 연구를 맡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천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화하고 또 대화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우선 깨끗해야 했습니다. 부패가 모든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목사 사례비를 포함한 재정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회계를 외부에 맡겼으며 월급 등의 기존 경비를 가능한 한 전체 수익의 10퍼센트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절약한 덕분에 지역으로 나눔과 섬김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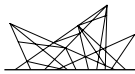
대형교회로 가기보단 분립을 선택했습니다. 새 성전을 4,000석 규모로 하자는 주장도 많았지만 2,000석으로 줄이고 대신 분립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새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조직을 위원회 중심, 팀장 중심으로 바뀌서 성도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 내 교육 강좌도 외부에 개방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셨습니다. 개혁의 와중에도 끊임없이 총 6만의 성도들을 보내 주셨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인간 정성진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개혁이 주님의 인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절실했던 과제는 당회 개혁이 아니었나 합니다. 사회는 이미 젊게 변했고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직 교회만 60대 장로와 목사 몇 사람의 '나를 따르라'로 이끌어진다 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장로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일 뿐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 세상의 계급이나 권위가 되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 가족을 먼저 벗겨야 했습니다. 저 스스로 65세 은퇴를 결정하니 감사하게도 모두 제 의견을 따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회 구성을 어린이 대표, 중고생 대표, 청년 대표 등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참여로 바꾸려 했는데 장로님들이 눈물로 호소하셔서 미성년은 빼고 청년 대표 이상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 정성진 목사는 은퇴 후에도 크로스로드 선교회를 만들어 목회자 양성, 보육원 퇴소 청년을 돕는 비밀언덕 사역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 교회 출석 성도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크리스천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위기입니다.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출석 성도 수가 약 30퍼센트 줄었다고 다들 걱정하던데 제가 보기엔 이것은 시작일 뿐, 더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까닭은 인구 감소나 탈종교화 바람 탓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교회가 세상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뢰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게 몹시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의 상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즉, 복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 그분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베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 제물로 바칠 만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에는 뜨거운데 이웃 사랑에는 미지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만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뜨겁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지역 구제 사업에 거룩한빛광성교회는 교회 총수입의 51퍼센트를 사용하려고 애썼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51퍼센트 주식을 가지신 대주주입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나라 많은 교회의 대주주 지위를 되찾으신다면 저는 대한민국 교회 대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3 2023년 『겨자씨』 특별기획 ‘리더에게 길을 묻다.’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의 길을 묻고 있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님께서 해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모두 잘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목사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거룩한빛광성교회에 몸담았으며 은퇴 뒤에도 열심히 크로스로드 활동하느라 뒷방에 들어갈 시간이 없네요. 모든 것이 주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를 맡지 않은 까닭이 이렇게 잔소리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굳이 한 마디를 해야 한다면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빛광성교회’입니다. 혹시 제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방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음의 길



⌞ 고양시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헤브리도서관에서 열린 성악 문화 교실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남지빌딩 3층에 있는 원당교회의 예배당 모습



세계로교회 장영호 목사 두 번 새벽을 깨우는 세계로교회

글 & 사진 김용기 기자

새벽 예배와 교회학교가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다

“10여 년간 지역을 살리는 작은 도서관과 평생교육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운영을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회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장영호 원당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치유와 세움이 있는 교회, 다음세대를 그리스도의 인재로 길러 내는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대에 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 목사는 고양에서 가장 목회하기 힘든 곳으로 알려진 원당 지역을 복음화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계로교회를 개척했다. 개척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했던 장 목사는 교회가 있는 동네에 헤브리도서관을 개관하고, 평생학습 카페를 개설해 지역 주민들과의 선교적 접점을 늘려 가는 사역을 지속했다.

“신도시 지역에 비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카페를 개설해 성도들이 점차 늘어났어요.”

⌞ 장영호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육선교사 파송이 새 출발의 동력

“빠른 성장은 아니었지만, 지역 주민과 소통을 잘하는 교회로 소문난 덕택에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와 교회에 정착하며 작지만, 병 고침과 문제 해결의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는 지역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거룩한빛광성교회와의 만남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올해로 ‘작은교회 세우기’ 10년 동역을 맞은 세계로교회는 거룩한빛광성교회가 지역의 작은 교회를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줄곧 전도대를 파송하여 지역 사회 복음화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교인들의 왕래가 어렵게 되고,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존에 교회에 나오던 신자들도 하나둘 교회를 떠나는 어려움을 겪으며 세계로교회 개척 이래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

“사모, 아이들과 교회에서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비록 힘들어도 예배로 지금의 고난을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 내려놓을까 생각한 때도 있었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지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장 힘들었을 때인 지난해에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전도사와 30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베테랑 교사 선교사님을 보내 주셔서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목회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평생학습 카페 열린 손뜨개 교실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성도들과 주민들

매일 새벽기도 2부와 저녁 예배로 지역 사회 전도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지난해 파송한 교육전도사와 교사 선교사가 교회학교를 전담하며 3명이었던 학생이 6명으로 배가되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여름성경학교에는 지역에 살고 있는 초·중학교 학생 9명이 참여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교회학교가 성장하며 그동안 침체했던 세계로교회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지며, 덩달아 새벽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다시 교회 성장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하나님이 처음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의 소명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새벽기도와 저녁 예배가 줄어들는데 오히려 새벽 예배부터 하나둘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양육하고 교육하여 파송하는 세계로교회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계로교회는 매일 새벽기도를 두 번 드린다. 1부는 새벽 출근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 새벽 4시 30분에, 저녁 늦게까지 일하며 아침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2부 새벽기도는 오전 7시에 드리며 새벽기도로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장 목사는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야 해 몸은 피곤하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은 비록 가족뿐이지만 매일 드리는 저녁 예배를 통해 늘 주민을 향해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지역 사회에 인식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문을 열고 주민의 소통 공간 역할을 한 세계로교회 평생학습 카페

✎ 9명의 아이와 함께 7월 22~23일 1박 2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사랑과 기쁨이 있는 세계로교회 교회학교로 초대합니다

글 박진희 전도사

아이들 섬기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권유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승낙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신다는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올해 1월 1일에 세계로교회에 파송되었다. 세계로교회는 코로나와 사모님의 암 투병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다. 세계로교회 목사님도 돕는 사역자 없이 1인 목회를 하며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 서너 아이의 신앙교육을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말 한마디 없던 아이들이 친구 전도하며 변화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양적인 부흥보다는 아이들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 주기를 부탁하셨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아이

✎ 세계로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인근 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린 후 맛있는 피자를 나누었다



들이 교회에 오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놀라지 말라고 하시며 “이 아이들이 말을 하게 만들면 성공이야.”라고 말씀하셨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로 모두 남자아이였다.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의 우려대로 아이들의 무표정과 무반응에 당황스러웠지만, 이 아이들을 섬기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선 세 아이와의 라포(친근감)를 형성하기 위해 분반 활동 시간에 활동 위주보다는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는지, 좋았던 것과 좋지 않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활동을 통해 4년 동안 교회에서 아무 반응도 없고, 말도 하지 않던 아이들이 입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목소리를 내어 찬양하였다. 이러한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웠다. 심지어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집에서 성경 구절 암송을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시고, 아이가 교회에 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친구를 전도해야 한다고 전도에 부담을 갖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녀들로 교회학교 성장

7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일곱 명으로 늘어나 양적인 부흥도 허락해 주셨다. 중학교 1학년이 한 명이었는데 두 명이 되었다. 새로 나오는 중학교 1학년인 고준희 학생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일은 정말 놀라웠다. 이 학생은 3년 전부터 친구에게 “나 너희 교회 가도 돼?”라고 물었는데 친구가 “아니~”라고 했고, 여러 번 같은 질문을 했는데 계속 거절당했다고 했다. 그런데 4월 야외 예배가 끝날 무렵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집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궁금하고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혼자 어른 예배에 참석하였고, 다닐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나님께

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 방법을 통해 부르시고 모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밌는 것은 기존의 아이들이 모두 남자아이들이었는데, 데려오는 친구들도 모두 남자아이들이라는 점이다. 지난 7월 22~23일 1박 2일로 진행된 여름성경학교에 아홉 명의 아이가 참여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 참석했던 초등 학교 2학년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이라는 고백을 하였다. 이 길을 가는 것이 고단하고 힘이 드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를 다시 발견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북한 어린이에게도 하나님 전하고 싶어

앞으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경험을 통해 북한 땅이 열릴 때 그곳에 어린이센터를 세워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북한 아이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 세계로교회는 본당 옆에 별도로 마련된 교회학교에서 매주 즐거운 찬양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린다

✎ 지난 5월 어린이와 어버이주간을 맞아 특별 예배를 드리며 기념사진 촬영

중학생으로서 쓰는 마지막 『겨자씨』

글 최아인 학생 기자(중3)

나만의 방식으로 중학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한다. 내가 3년 동안 몸 담았던 중등부의 추억을 정리하기 위해 중등부를 만들어 나가는 학생들, 중등부의 네 가지 사역지파(워십, 찬양, 방송, 예배)를 인터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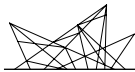


ㄹ 인터뷰가 처음이라 우리 모두 어색. 중등부 예배를 위해 언제나 열정을 쏟는 딜라이트(찬양) 최시온, 김태정 학생

최아인(이하 최 기자)	안녕하세요. 『겨자씨』 10월호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학생 기자 최아인입니다. 모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기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등부에서 사역지파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루다(워십) 박하은	일단 루다로서 특별히 하는 것은 2주에 한 번씩 딜라이트(찬양)와 함께 예배에서 찬양할 때 워십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나 본당 등 다양한 장소에서 워십으로 섬기고 있어요.
딜라이트(찬양) 김태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딜라이트(찬양) 최시온	다른 지파 친구들보다 먼저 나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지파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팀 박다인	컴소를 하거나 PPT를 만들고 넘기는 일도 하고요, 카메라 삼각대를 설치하고, 그 찬양을 여러 번 재생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팀 조민결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애들한테 주보를 나눠 주고 봉헌하는 일과 수련회나 이벤트 갈 때 인원 통솔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최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등부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일이 무엇인가요?
루다(워십) 이고은	모두 다 같이 워십을 따라할 때요.
루다(워십) 박하은	아무래도 평소 주일에는 다들 워십을 많이 안 따라 하는데 수련회에 가면 뭔가 그 열기 때문에 더 많이 따라해 주고 그럴 때 가장 보람찬 것 같아요.
딜라이트(찬양) 김태정	열심히 연습한 찬양을 주일과 수련회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보람찬 것 같아요.
딜라이트(찬양) 최시온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수련회에서 찬양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찬양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방송팀 박다인	일이 잘 풀릴 때인 것 같아요. 일의 진행이 깔끔하게 되거나 좀 버벅거리면서 했던 게 오히려 잘 풀리게 됐던 때가 가장 보람차요.
예배팀 조민결	수련회에서 애들 인원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해 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반지파였을 때보다 사명감이 좀 있다고 해야 하나? 뭔가 좀 예배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봉사를 하니까 보람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 기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등부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루다(워십) 이고은	워십을 열심히 하다 보니 몸이 힘들고요. 주일에 워십할 때 친구들 반응이 시큰둥하면 너무 힘들어요.
루다(워십) 박하은	리허설을 한 번 하고 본 예배를 또 드리다 보니까 땀이 엄청 많이 나고 겨울에도 되게 더워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딜라이트(찬양) 김태정	토요일 3시에서 6시까지 연습을 해요. 그래서 개인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딜라이트(찬양) 최시온	저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연습하는 것도 있고, 주일 아침 7시 반까지 와서 또 연습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게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방송팀 박다인	찬양팀이 갑자기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쏘야 할 때 배터리가 없어서 카메라를 못 쏘다 던가, PPT를 주일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 힘이 들어요. 찬양팀에서 같은 가사를 반복적으로 많이 부르는데 그때 가사를 넘기는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련회 때는 다른 친구들은 수영장에서 노는데 방송팀은 리허설을 해요. 다른 친구들이 쉴 때 일했던 게 좀 힘들었어요.
예배팀 조민결	평소에 그렇게 교회에 빨리 오지 않는데 빨리 와야 할 때가 있어서 살짝 좀 피곤해지는 것도 있고, 수련회 때 애들을 깨우는 일들이 너무 힘들 때도 있었어요.



중등부 여름수련회



최 기자

최 기자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등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루다(워십) 이고은

워십을 못 따라 하더라도 찬양할 때 다 같이 찬양을 불러 주었으면 좋겠어요.

루다(워십) 박하은

흥이 나는 분위기만 만들어 줘도 고마울 것 같아요.

딜라이트(찬양) 김태정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찬양 많이 따라 하고 워십도 함께 해 주면 좋겠습니다.

딜라이트(찬양) 최시은

지금도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들 찬양할 때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팀 박다인

예배팀은 주보를 나눠 주고, 딜라이트(찬양)와 루다(워십)도 대부분 다 보이는 곳에서 일해서 친구들이 많이 알아봐요. 그런데 방송팀은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해서 그런지 약간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좀 인정해 줬으면 해요.

예배팀 조민결

주보를 나눠 주는데 잘 안 받는 친구가 있어서 주보 좀 받아 줬으면 좋겠고 좀 더 예배팀의 안내에 잘 따라 주면 좋겠어요.



중등부의 찬양 온도는 언제나 100도!

최 기자

졸업하는 3학년이 각자의 지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루다(워십) 박하은

졸업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보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3년 동안 루다에서 지내면서, 루다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서 무척 행복했고 루다 덕분에 주일에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딜라이트(찬양) 최시은

친구들 다들 열심히 따라와 줘서 고마웠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3년 동안 너무 감사드려요. 졸업하고 나서도 종종 찾아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딜라이트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방송팀 박다인

친형이 3학년인데 되게 걱정되는 점이 많더라고요. 1학년이 일을 어려워해서, 3학년이 졸업하면 인원의 절반이 빠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요. 잘 배워서 3학년들이 졸업해도 방송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또 1학년으로서 졸업하는 3학년 누나, 형에게 그동안 고생했고 고등부 가서도 방송부를 하거나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어요.

예배팀 조민결

3학년 없이도 고생하고, 애들 말 안 들어도 너무 화내지 말고, 홍보 잘해서 1학년이랑 애들 좀 많이 들어와서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중 잠시 카메라를 보고 한 컷. 예배팀 조민결, 방송팀 박다인 학생

루다(워십)

김민서 선생님, 박유하 선생님

1학년: 강서연, 이서빈, 이서연, 이하율, 박서연, 태경환
양예성, 한승아, 신지우, 배태은

2학년: 이고은(부팀장), 김연아, 정지민

3학년: 박하은(팀장), 이은빈, 변신예, 강예본

딜라이트(찬양)

김정은 선생님, 윤현도 선생님

연아, 유찬, 도현(팀장), 단아, 승준, 성준, 은비, 지민
지우, 산, 태정, 연우, 채은, 휘성, 혜교, 예지, 하진(부팀장)

시은, 태정

방송팀

박희창 선생님, 김영식 선생님, 고예림 선생님

승준(팀장), 서영, 서윤, 시은, 진성(부팀장)

다인, 한결, 영준, 가은, 유림, 규리

예배팀

김현성 전도사님

1학년: 이동훈, 이덕형, 강기주, 김하은, 오서진

2학년: 김유진, 심유진

3학년: 김서은(팀장), 박예은, 조민결, 최아인(부팀장)



진정한 예배드리며 교회로 살아가고자 고백한 초등3부

글 전영숙 기자

초등3부의 여름은 아이들 스스로 예배 규칙을 정하여 약속한 후 예배의 의미에 대해 함께 배워 나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긴 장마와 폭염에 지쳐 흐트러질 수 있는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초등3부는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쳤다. 이 땅에 주님의 법도를 세워 나가면서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초등3부가 되기를 기대하는 순간이었다. 그 은혜의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하반기를 준비하며 예배 시간에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를 고백하는 신앙고백문을 나누기도 했다. 초등3부에서 다루기엔 조금 무거운 주제인 듯하기도 하지만 배요섭 전도사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믿음이 담겨 있다. “예배자의 자세, 교회의 마음가짐, 그리고 이 땅에 보내어진 사명자의 삶을 함께 나누며 초등3부는 점점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일꾼이자 사랑스러운 자녀로 자라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며 더더욱 지혜로운 예배자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학교이자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초등3부는 교육과 교제를 잘 양립하며 걸어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초대이자 주님을 바라보는 예절임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자라는 초등3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 1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를 고백하는 신앙고백문을 나누며 환하게 웃는 초등3부 학생들
- 2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주의 영광 위해 살기를 다짐한 초등 3부의 여름성경학교
- 3 스스로 예배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지켜나가기에 힘쓰기도

‘소명’ 열매가 풍성했던 초등4부 열매마을

글 전영숙 기자

세찬 빗줄기와 불볕더위를 오가던 여름이었지만 초등4부는 하나님께서 열매마을에 베푸신 소소한 은혜들을 주워 담기에 바빴다. 작년 11월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김하람 전도사는 ‘좋은 땅’이라는 초등4부의 표어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교회 전체 표어를 접하면서 ‘좋은 땅에서 심기고 자라서 맺어진 열매’라는 말을 마음속에 떠올렸다고 한다. 2023년 초등4부가 풍성한 열매마을이 되리라는 기대감에 시작했는데 그 결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거의 매 주일마다 비가 왔던 7월로 기억되지만 곳은 날씨 속에서 강성광 선교사 가정이 열매마을에 찾아왔을 때, 아이들은 선교사의 삶에 대해 들으며 왜 선교를 하시는지에 대해 재미있고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 가정을 축복하며 파송함으로써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초등4부의 여름을 뜨겁게 달군 건 ‘소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여름성경학교. 그중에서 특히 김 전도사의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각

팀별로 만든 소명신문이다. 다음세대 아이들의 신앙이 소명신문 만들기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부모님들이 예배실로 직접 와서 보시고 소명신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적은 말씀 노트를 보던 중에 제 마음에 베푼 감동을 준 글귀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짧은 기도가 적혀 있었는데 그저 감사함으로 선생님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감사와 감동으로 가득한 기운을 모아 초등4부는 8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9월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대해 말씀과 공과를 이어 나갔다. 아이들의 생각과 믿음의 크기는 어른의 잣대로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함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키와 지혜가 자라길 기도하며 지켜보는 일밖에 뭐가 더 있을까.

- 1 열매마을의 풍성함이 성경학교를 통해 드러났다
- 2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슴에 담게 된 초등4부
- 3 초등4부 '나의 기도문' 중에서
- 4 각 팀별로 소명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게 해 준 소명신문 만들기



⌕ 여름수련회 수영장에서

여름수련회 ‘업!로드’

글 정은숙 기자

**‘업!로드 하나님께로!’ 가나긴 장마 후 화창한 날씨 가운데 시작된 여름수련회!
성령의 열기로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중등부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강화 신화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었다. 학업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수련회는 일상을 잠시 떠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알아가며 인격과 성품을 바로 세우고, 예배 공동체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기회일 수 있다.

찬양콘서트, 물놀이, 저녁 집회 등 프로그램과 예배가 진행되었고 특별히 ‘거광약국’(거룩한빛광성교회 약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선을 보였다. 거광약국은 학생들이 약사가 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업, 진로, 연애, 중독 등 여러 가지 고민을 들어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나 문구가 적힌 카드와 약을 처방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으로 진행된 ‘학생 자발적 프로그램(준비부터 시행까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한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걱정을 많이 했지만 거광약국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최

고의 시간이었다. 김현성 전도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며 중등부가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했다.



⌕ 중등부 여름수련회 단체 사진



고등부,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글 정은숙 기자

UPDATING: ver. JESUS

2023년 7월, 고등부는 ‘업데이팅’을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진행했다. ‘Update’는 기존의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수정, 추가,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즉 어떤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우리를 가장 강력한 지혜와 능력으

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 돌아보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출발했다. 박주는 전도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 주셨던 삶을 닮아 가는 것에 기준과 목표를 두고 성장해 나간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삶을 해석하는 방법, 능력이 바뀌고 꿈을 향해 도전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수련회를 통해 이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가장 듣고 싶은 말

청소년 시기는 신앙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민감한 감수성과 깊어진 자아의식은 신앙의 경험을 깊고 풍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망과 열정을 강하게 한다. 그러나 또한 이 시기엔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여름수련회가 바로 그 울타리가 되었고, 여름수련회 기간 동안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 가면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기쁘게 뛰며 찬양하고, 말씀으로 삶을 비춰 봤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다. 모두가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칭찬보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와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저마다 ‘바르게 사는 나만 사랑받아야 한다는 오해’와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산다. 조준동 집사(부장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며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매일 업데이팅을 멈추지 않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고 기대와 포부를 전했다.

청년광장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2023 해외 비전트립

이스라엘 & 요르단

2023년 6월 28일 ~ 7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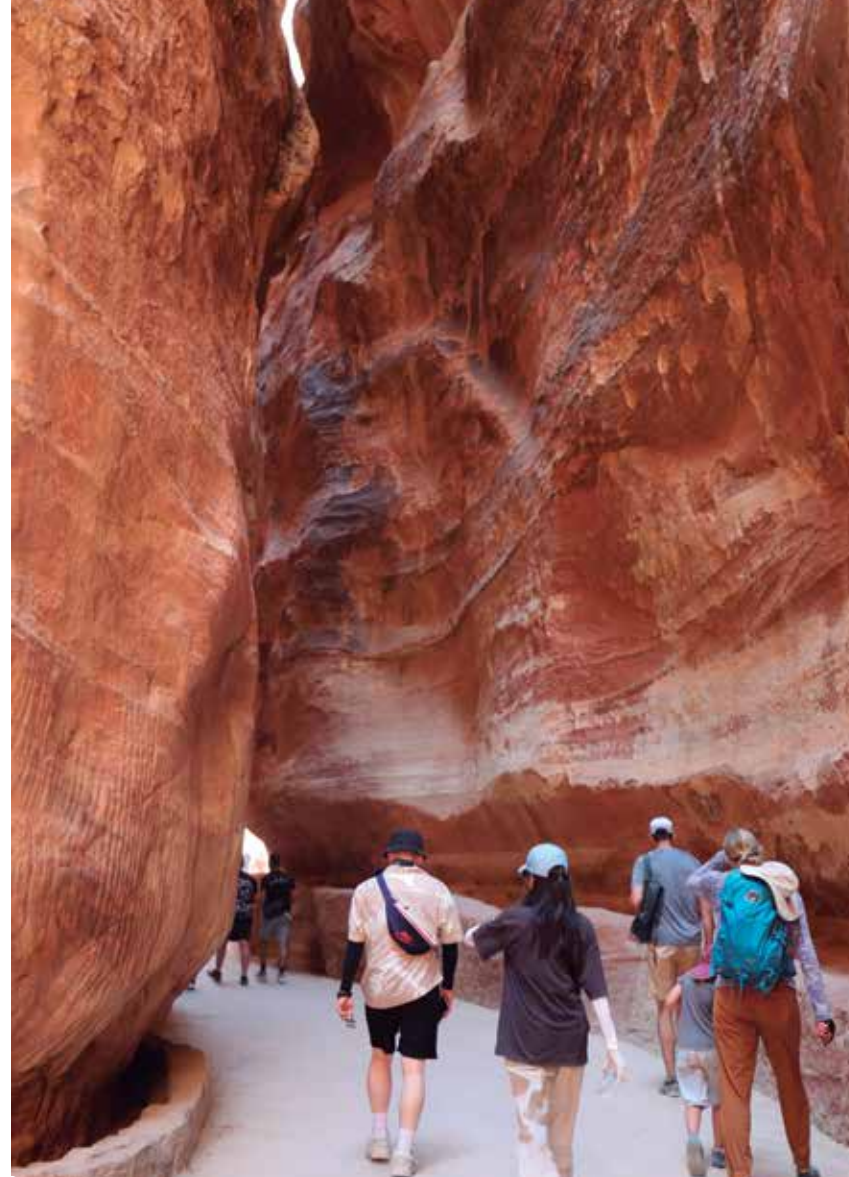
우리의
모든
순간은
빛이 났다



YouTube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holylightkwangsungscn

유튜브[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채널에
다큐멘터리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빛**이 났다



나무와 숲 학교, 그리고 하나님

글 조희성 기자

싱그러운 여름, 풀은 살찌우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계절입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여름을 맞이하여,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는 제주에 자리한 '나무와 숲 학교(교장 : 권오희 목사)'에서 사흘간의 여름 캠프 및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30명의 청년과 2명의 교역자로 구성된 국내 비전트립 팀 올레 제주(Olle Jeju)는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15일간의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섬기게 된 나무와 숲 학교는 지역교회 연합으로 이루어진 학교로 제주 복음화를 열망하는 목회자들과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려는 사명감으로 가득한 교사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는 교회들의 연합으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학교 교육철학에 따라 비인가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또 하나의 가정으로, 마을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성경적 소명의 교육과 창의적인 체험활동에 함께하고자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도착 첫날, 레크리에이션과 제빵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직은 서먹해 하는 학생들과 어울려 빵을 굽고 대화하면서 간격을 좁혔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여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진심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어 준 학생들과 함께 둘째 날에는 직업특강과 운동회, 저녁 집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의 직업윤리와 가치관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운동회와 저녁 집회를 통하여 청년들의 열정에 어색해 하던 학생들도 점차 선생님이라는 말을 익숙하게 사용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어진 학



⌘ 2023년 제주 비전트립 Olle Jeju팀



⌘ 직업소명특강



⌘ 맛있는 간식 요리 중



⌘ 학생들과 함께한 레크리에이션

생들과의 활동은 미술 프로젝트와 마무리 모임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휴식 시간을 통하여 제주 해변과 금오름, 제주 4.3 기념관과 시장도 둘러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나무와 숲 학생들처럼 청년부 또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우애를 다졌습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도우심과 서로 사랑하고 나눔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청년들의 의지와 헌신으로 지난 3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였고, 비전트립 바자회, 기도회 등의 많은 노력이 이번 비전트립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청년들은 먼저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청년들 또한 학생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작지만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학생들의 울코는 믿음과 열망을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직업관과 소명을 위하여 하나라도 더 알아 가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면서 학생들 또한 청년들만큼 뜨거운 열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의 여름은 나눔과 헌신의 계절이었습니다. 국내, 해외 비전트립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자연스레 코로나19로 잊혀졌던 청년 공동체 정신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동체에도 새살이 돋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꿈꾸는 여름 사역을 주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글 박지석(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미안하지만 다른 일을 구해야 할 것 같구나.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이해 부탁한다.”

6개월간의 인테리어 보조생활은 이 한 마디로 끝이 났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 두 달 동안 현장을 뒀던 기억은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일이 없었기에 이런 순간을 충분히 예상했다. 다만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서 내가 아직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 암담했다. 아는 동생 소개로 취직을 했고, 소개받은 만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각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취직도 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매일을 안일하게 보낸 것이 이렇게 화가 되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늘 불안해하면서도 막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걱정만 하다 보니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가다간 정말 인생이 잠식될 것 같아서 가능한 일용직부터 찾아다니면서 계속 일을 했다. 처음에는 일을 잘 못하니까 일주일도 채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 한두 달씩 한 군데서 꾸준히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삶이란 인테리어 때처럼 너무 흔들리는 삶이었다. 깊은 고민 끝에 떠오른 생각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였다. 그 동안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의 추천으로 수동적인 일만 하며

살았다. 지난번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전에 했던 것들도 다 아는 사람들 소개였지, 내가 원해서 지원한 적은 없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떠오른 건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자.’였다. 맛있는 빵이나 과자를 직접 만들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그 쪽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했다. ‘관련 자격증을 따자.’라는 생각까지 나아갔고 그렇게 제과,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목표가 세워지니 무미건조했던 나의 일과가 미래를 위한 발걸음으로 느껴지며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다. 국비 지원을 받았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원하는 일을 하게 되니 낮의 힘든 일도, 학원을 다니는 것도, 어려운 공부도 모두 즐거운 과정이 되었다. 물론 즐겁다고 해서 공부가 잘되는 건 아니었다. 제빵기능사는 7번 낙방을 한 뒤에야 합격을 했다. 곧바로 가까운 빵집에 취직을 했다. 새벽부터 나와서 빵을 만드는 일은 너무도 어려웠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내 손으로 만든 빵, 과자들이 손님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힘들 때마다 빵을 공부하고 만들던 때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에 휘말려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답을 찾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한다.



ㄹ 빵 태웠다!



ㄹ 파이 반죽. 일과 시험은 차원이 달랐다

사역과 헌신, 그리고 청년

글 김신영(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많은 꿈과 목표, 많은 비전을 가지고 리더를 시작했던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리더와 사역을 잠시 내려 두고 청년의 삶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병역 의무 중에도 사역과 헌신이 가능했습니다. 말년이 되면서 제대를 한 후 더 많은 사역과 헌신에 임하자 다짐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좋은 기회로 원하는 곳에 취직하게 되면서 이러한 생각은 전역 3주 만에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일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실감해야 했습니다. 2교대라는 단어가 따라붙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의 사역과 더불어 신실함이라는 이름과도 멀어지게 되면서 걱정이 깊어 갔습니다. 과거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와 멀어지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진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신앙심과 신실함이 최고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관참을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마

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고민의 시간은 저에게 사역과 헌신, 그리고 청년의 삶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숙제를 안겨 줬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여 더더욱 기도와 찬양에 매달렸고 주변 형제, 자매 및 리더들에게 많은 상담을 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위로 덕분에 마음의 안정감을 느껴 주말에 쉬는 날이면 최대한 신앙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과 헌신 속에서 청년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공동체의 사랑과 인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주님의 집인 교회에도, 스스로 가꾸어야 하는 청년의 삶에도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여정 중인 한 청년의 행보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ㄹ 취직을 앞두고 리더 마지막 날



ㄹ 현재 열심히 일하는 일터

만나와 메추라기 담과 기쁨



노아스쿨 열정 passion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

사랑은 트럼펫을 타고



문화산책



행복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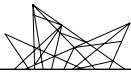
작가 노트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자연과 어울려 누리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소소하고 평범한 소재를 통해 다양한 상상 속 행복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어쩌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주변의 소소함을 대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림 속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독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 풍경이나 동네의 모습, 매일 만나 일상을 공유하는 친숙한 순간을 동화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해바라기가 넘실대는 꽃밭을 캠핑카를 타고 가로지르는, 기분 좋은 상상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숙연

중앙대학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및 초대전 19회(일호갤러리, 국회아트갤러리, 인사아트센터, 아트 보다갤러리 등)
아트페어 16회, 단체전 80여 회 참여
現 한국미술협회원, 의왕미술협회원, 계원예술대학교교육원 출강



캘리그라피



행복여행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1장 22절



작품

이현미 집사 作
캘리그라피선교팀장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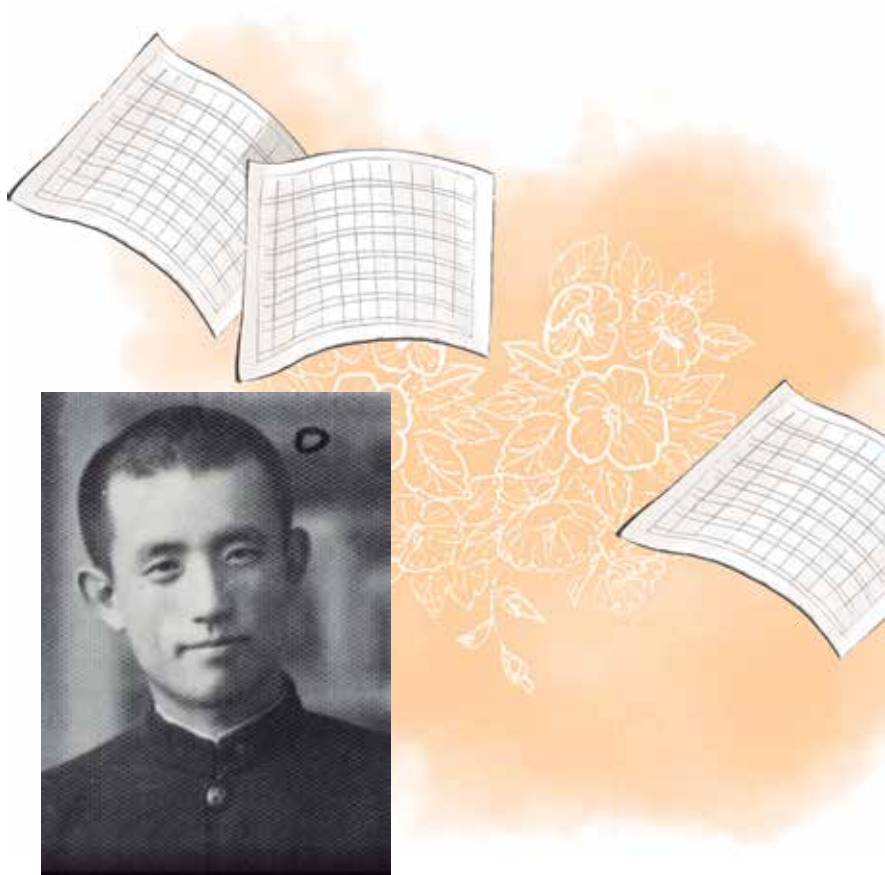
글 김형수 기자(소설가, 필명 김범)

연희전문 졸업 기념으로 시집을 출간하기 위해 윤동주는 19편의 시를 정리해 먼저 스승과 후배에게 보여주었는데 일제 검열을 염려한 스승의 만류로 그만 출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인이 일본 감옥에서 사망하고 나라가 해방되고서야 원고를 간직하고 있던 후배의 노력으로 비로소 1948년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로 시작되는 대표작 「서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족시인이며 독립투사였던 윤동주를 모르는 이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건 아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일찍이 윤동주의 선조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만주로 이주해 명동촌을 건설하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시인의 외숙 김약연이 명동학교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 김약연은 정재면을 교감으로 초빙했는데 척박한 만주 땅의 신설 학교에 부임하는 유일한 조건으로 기독교인 정재면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명동촌으로선 참으로 난감한 조건이었습니다. 며칠을 두고 심사숙고한 끝에 명동촌은 조건을 받아들였고 학교에 부임한 정재면은 성경과를 신설하고 명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김약연도 크리스천이 되었고 윤동주 집안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태어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시인 윤동주. 시인의 시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독교 정신이 깊이 깔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읽을 때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시인의 시 중 가장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시 한 수를 소개합니다.



㉞ 시인 윤동주



㉞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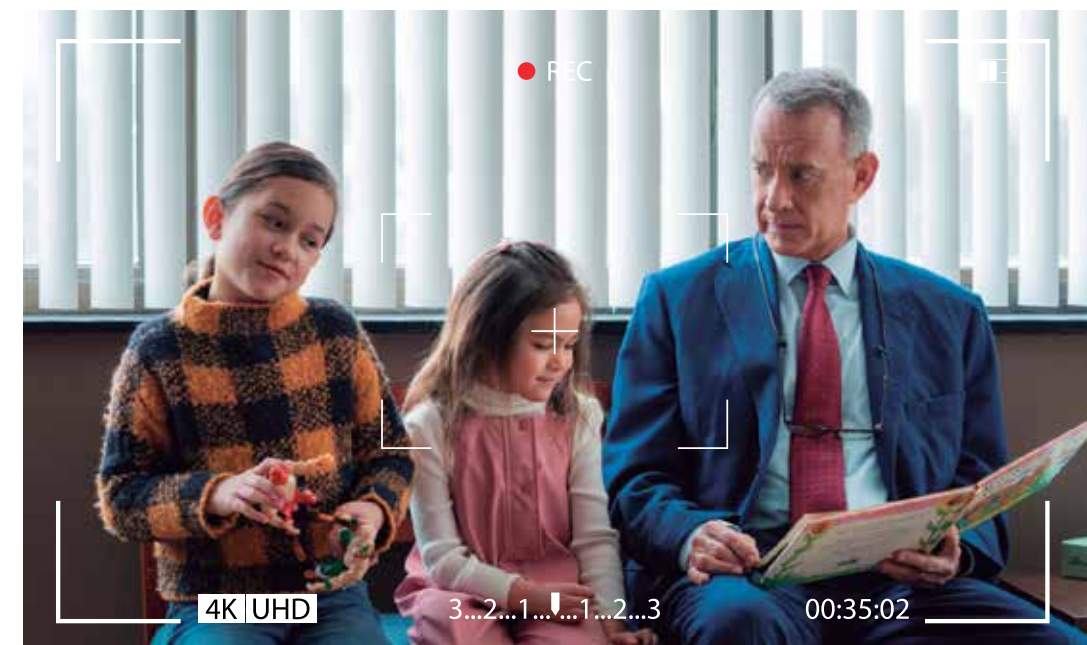
오토라는 남자

글 강혜미 기자

8년 전쯤 무척 재미있게 읽은 소설책이 있었다. 책의 제목은 『오베라는 남자』. 책을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명의 영화로까지 개봉되어 무척 인상 깊게 남아 있는 작품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 비슷한 제목의 영화가 곧 공개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해당 영화의 미국판 리메이크 작이었다.

믿고 보는 배우로 정평이 나 있는 톰 행크스를 주연으로 내세워 더욱 기대감이 컸다. 이미 3월에 개봉했다는데 왜 나는 몰랐던 것인지 속이 상했지만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드디어 공개되던 날 열 일을 제쳐두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스웨덴 원작에 비해 훨씬 몰입감이 있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셜 미디어 기사를 등장시키는 등 센스에 감탄했다.

톰 행크스가 연기한 ‘오토’는 아침마다 동네를 순찰하며 잔소리를 해 대는 괴팍한 사내로 ‘곤대’라는 말이 찰떡같이 어울린다. 그런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낸 후 삶의 의욕을 잃은 나머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한다. 전기와 가스를 끊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후 막 거실에 목을 매달려야 할 찰나 신경 쓰이는 이웃이 등장하고 만다. 트레일러를 단 차를 주차하려다 자꾸만 인도까지 침범하고 마는 토미. 오토는 답답한 나머지 문을 박차고 나가 대신 주차를 해 주었는데 그때부터 귀찮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걸핏하면 공구를 빌리러 오지를 않나, 직접 만들었다며 음식을 들고 찾아오는 토미의 아내 마리솔. 그뿐인가. 아내의 제자였다는 말콤을 비롯해 측은하기가 이를 데 없는 길고양이에, 오랜 친구였지만 사이가 틀어졌던 루벤과 어니타까지 그의 도움이 절실하다. 보여지는 것과 달리 ‘츄데레’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오토. 과연 그는 계획대로 아내의 곁으로 갈 수 있을까? 삶과 죽음, 사랑, 가족, 이웃 등 생각할 거리를 한 아름 안겨 준 오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닿을 수 있길 바란다.





‘뜨거움’을 소망하게 한 여행, 중남미문화원!

글 & 사진 전영의 기자

카리브해에 뿌려진 수많은 섬 중 헤밍웨이는 유독 쿠바를 사랑했다. 럽에 설탕, 민트, 탄산수를 넣은 쿠바의 칵테일 모히또를 즐겨 마셨고, 그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 준 『노인과 바다』 또한 쿠바의 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스페인을 떠나 대항해 시대의 포문을 열고 첫발을 디딘 신대륙 또한 카리브해의 한 섬이다.

가까이서 중남미의 향기를

헤밍웨이와 콜럼버스의 서사만으로도 카리브해와 그 연안 국가들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설렘의 여행지다. 하지만 1~3회의 경유, 편도 30여 시간에 이르는 소요 시간, 만만치 않은 경비는 단지 설렘만으로 여행 가방을 꾸릴 수 없게 한다. 그래서 더 그림고 아련하다. 그런데 가까이에 카리브해를 품은 중남미 국가들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중남미문화원’이다. ‘중남미’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미, 카리브, 남미 지역을 말하며, 중남미문화원은 그곳의 삶

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고대 유물, 미술, 조각, 민속공예품, 생활용품 등을 전시하고 있는 중남미 테마 공원이다. 이곳 삼천여 점의 전시품은 이복형 중남미문화원장이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30여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부인 홍갑표 여사와 함께 현지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지금도 수집은 계속된다고 한다. 여러 문명이 패권을 다했던 중남미. 거센 파고 속에서 그들이 꽃피운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은 오늘 여행자에게 무슨 말을 걸어 올까?



≡ 중남미 국가의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도미니카공화국 화가 칸디도 비도(Candido Bido)의 그림 「생명의 나무와 태양」이 눈에 띈다



≡ 중남미 고대 유물, 미술, 조각, 민속공예품, 생활용품 삼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 중남미문화원



≡ 멕시코 음식점 ‘따꼬하우스’에서 우연히 만난 홍갑표 이사장. 자신의 저서 『지금도 꿈을 꾸다 태양의 열정으로』에 사인 중. 책 선물도 받고 집 초대도 받은 중남미문화원 여행이다

붉은 정열이 춤추는 미술관

쿠바, 페루, 에콰도르, 니카라과,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의 그림, 조각상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 1층. 벽에 걸린 미술 작품에서는 하나같이 정열이 춤을 춘다. 도미니카공화국 화가 칸디도 비도(Candido Bido)의 그림 「생명의 나무와 태양」은 중남미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듯하다. 나무의 몸통은 바다를 연상케 하는 청록빛이고, 나무 꼭대기에는 도미니카를 연상케 하는 노란색 꽃과 태양이 타는 듯한 붉은 꽃이 활짝 피었다. 거기에 원시적이고 기하학적인 무늬가 어우러져 정열과 신비로움을 한없이 자아낸다. 카리브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삶을 적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색감을 담아낼 수 있을까 싶다.

중남미 문명의 보고, 박물관

박물관은 중앙홀과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홀에 들어서면 넓은 홀 가득 라틴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홀을 둘러 가며 사방에 펼쳐져 있는 전시품은 여기가 중남미인가 싶게 한다. 박물관에는 원시 신앙 자료부터 은세공품, 목공예품, 토기, 구리 인형, 가면, 배, 사냥 도구, 다리미 등 중남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품이 즐비하다. 한쪽 벽에 걸린 청새치 모형이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떠올리게 한다. 노인의 적수였지만 그로부터 ‘멋지고 별난 놈’이란 찬사를 받은 청새치. 여전히 위풍당당하다. 제3 전시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멕시코 가면이 인상적이다. 다양한 형상의 가면에서는 기쁨, 희망, 절망, 분노 등 인간의 각종 희로애락이 꿈틀거린다. “우리는 가면과 공존한다.”라는 옥타비오 파즈(Octavio Paz)의 말에서 멕시코의 아픈 역사를 읽을 수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 또한 수많은 가면의 숲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뜻밖의 만남

‘조각공원’과 ‘종교전시관’을 둘러보고 멕시코 식당 ‘따꼬하우스’의 야외 테이بل에 앉았다. 토르티아와 나초를 앞에 두고 여행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중남미문화원 이복형 원장의 부인 홍갑표 이사장이다. 마주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홍갑표 이사장이 중남미문화원 내에 있는 자신의 생활 공간(집)으로 뜻밖의 초대를 했다. 집에서 이복형 원장의 얼굴도 볼 수 있었다. 책장, 식탁, 의자, 침대 등 대부분의 생활 도구는 중남미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듯싶다. 신록이 넘실대는 넓은 창가에 앉아 홍갑표 이사장으로부터 마야, 아즈텍, 잉카의 유물에 심장이 뛰었던 중남미 시절부터 이곳에 중남미문화원을 설립하고 사회에 환원하게 된 배경 등을 들었다. 올해 89세. 토르티아와 나초 사진을 찍고 있던 첫 만남에서 나는 1분도 안 돼 느낄 수 있었다. ‘뜨겁다’. ‘태양처럼 뜨겁다’. 여행은 뜻밖의 만남을 선물한다. ‘뜨거움’을 소망하게 하는 중남미문화원 여행이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숨겨진 찬송 이야기' 발췌 -

1517년, 가톨릭 수도사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95개 비판문을 게시하고 ‘구원은 공로, 즉 면벌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교황과 가톨릭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비판은 온 세상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 루터는 가톨릭의 절대 권력에 의해 언제 살해되거나 구금될지 모르는 절체 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4년 후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와 트리에르 대주교는 루터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면서 보름스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이가 보름스로 가는 것은 쉼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일이라며 만류했으나 루터는 개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보름스로 향했습니다.

청문회 전달 밤, 루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약한 인간이었기에 그는 매우 고독했고 몹시 두려웠고 그래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루터를 시편 46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편 46:1]’

그렇구나,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날 굳게 지켜 주시는구나. 루터는 더 이상 외롭지도 두렵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솟아오름을 느꼈습니다. 루터는 그 감동으로 즉석에서 시를 짓고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그는 기쁨으로 새 찬송을 노래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로다.**

청문회에 참석한 루터는 회유를 강권하는 황제와 대주교 앞에서 ‘성서의 증거와 이성에 비추어 결코 교황과 가톨릭의 가르침과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 마틴 루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새찬송가 585장)

최고목회자협의회
대한기독교서회
가사/작곡: H. Luther, 1529
시조: 김복자

A

1. 내 주는 강 - 한 성 - 어 요 방 패 와 병 기 되 - 시 니
2. 내 영 만 의 - 지 알 - 패 는 배 알 수 밖 에 없 - 도 다
3. 내 땅 에 마 - 귀 돌 - 팔 어 우 리 를 삼 키 려 - 하 나

B

5. 큰 환 난 에 - 시 우 - 리 를 구 하 여 내 시 리 - 로 다
원 었 는 장 - 수 나 - 와 서 날 대 선 하 여 싸 - 우 네
견 내 지 말 - 고 섰 - 거 라 진 리 로 이 기 려 - 로 다

C

17. 무 기 를 삼 으 니 전 아 예 누 가 당 - 하 라
당 자 는 구 라 반 드 시 이 기 려 - 로 다
진 리 는 살 아 사 그 나 라 영 원 하 - 려 라 아 멘

- U2로 노래 -

수어

수어통역 장현정 권사(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장)

안녕하세요? 수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이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짹짹!

안녕하세요



1번과 2번을 이어 동작하면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왼손 주먹으로
원을 한 바퀴 그려주세요.

3번과 4번을 이어 동작하면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5번과 6번, 7번을
이어 동작하면
'그리스도'
란 뜻이 됩니다.

짚막하게 전하는 교회 소식

글 김용기 기자 사진 거룩한빛광성교회 미디어팀

1. 13개 교구 선교팀, 전 세계 선교지 방문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선교, 더 깊은 연결(누가복음 5:4)」을 주제로 교구별로 전 세계 9개 나라 선교 현장을 방문했다. 교구별로 13개 팀, 155명으로 구성된 선교팀은 5월 18일 필리핀 선교지 탐방을 시작으로 8월 10일 조이폴장년부 과테말라 선교지 방문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의 선교지를 직접 방문해 선교에 앞장섰다.

제7교구 우간다 선교팀이 허정도 선교사 사역 지역을 방문해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2. 2023 청년부 해외 비전트립 ‘오르 이스라엘’

청년부는 6월 28일~7월 6일까지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를 방문하는 해외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청년 28명으로 구성된 비전트립팀은 예수님께서 걸었던 길을 생동감 있게 경험하며 은혜를 나누는 여정을 가졌다. 청년부는 7월 12~15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국내 비전트립에도 나서 ‘나무와 숲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캠프를 진행했다.



3. 초등·청소년부, 2023년 꿈담 여름 비전트립 진행



초등과 청소년부 학생들은 제주도와 일본으로 비전트립을 다녀오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초등부 학생들은 8월 6~9일 제주도 행원교회에서 꿈담 여름 비전트립을 진행했다. 청소년부는 8월 12~16일까지 일본 오이타 벳푸교회를 방문해 일본의 선교와 문화를 체험했다. 초등부 학생들이 제주도 비전트립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4. 광성라이프호프, ‘유츠프라카치아’ 연극 공연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꽃의 이름이기도 한 유츠프라카치아는 ‘사랑을 주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다. 광성라이프호프팀은 6월 24일 지저스아트홀에서 사랑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내용의 연극 공연을 통해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5. 국내 선교위원회, 연천 원당교회에서 여름사역 활동



국내 선교위원회는 7월 24~25일 무박 2일 동안 경기 연천 원당교회에서 여름사역을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지역에서 진행된 여름사역에서는 미용과 의료봉사, 집수리 등 독거노인 주거지 환경개선과 지역의 환경미화 활동이 펼쳐져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6. 제2찬양위원회, 은혜 충만한 찬양축제 펼쳐

제2찬양위원회는 8월 6일 주일 오후 6시 광성홀에서 모든 찬양단이 참여하는 찬양축제를 열었다. 홀리라이트 색소폰선교회 등 찬양단은 지난 1년 동안 연습한 찬양과 율동을 선보이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눴다.



크로스로드 MISSION

크로스로드 3대 사역

크로스로드선교회는 크게 3가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1] 다윗의 물뿔들 사역



- 급변하는 목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목회자 컨설팅 사역 (목회 방향 상담, 담임목사 청빙 상담, 목회자 은퇴 상담 등)
- 목회자 이종직 시대를 준비하며 목회자 직업학교(선교회 산하 별도 법인 설립 예정) 사역
- 젊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의 사명을 확인해 주고 교육하는 사역 (목회환경이 어려워지며 사역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거나, 교육전도사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사역을 안 나간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 작은 교회들은 교육전도사 수급의 어려움이 생김)
- 젊은 목회자들이 실질적인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훈련 시키는 개척학교
- 한미준 세라인 스쿨(유튜브)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
- 현장의 필요에 맞는 세미나 사역

[2] 통일선교 사역

- 불시에 찾아올 통일을 대비하며 기도하는 통일기도의 집(해마루광성교회) 설립
- 여러 단체들(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북한지역목회자협의회, 북한기독교총연합회)과 연대하며 실제로 통일을 대비하는 통일선교 사역
-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법률지원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제800차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에서 말씀 선포 중인 정성진 목사



통일선교사역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의 집(해마루수도원)을 세우고 여러 단체들과 통일을 대비하는 통일선교사역

“2004년 시작된 연합기도 운동이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로 이어져 800차까지 지속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에서 드러지는 기도가 통일 대한민국의 새벽을 밝히게 될 것”

[3] 비밀언덕 사역

-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떠나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
- 자립 청년들의 신앙과 진로 멘토링,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
- 정기적인 모임과 캠프를 통해 친교



크로스로드 후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3-753130

예금주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크로스로드 사무실

031-901-0316



♣ 광성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와 함께

광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소개합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제1찬양위원회 산하 '광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와 5대 비전 가운데 하나인 '지역사회 문화중심'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광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99년에 창단되어, 2005년 제1회 정기 연주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23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차광철 초대 지휘자부터 박성택 목사님에 이어 2013년부터는 우나이 우레초(Unai Urrecho) 수원대 음대 교수(현 지휘자)가 광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연주회, 거룩한빛광성교회 창립기념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해 왔으며 찬양대와 함께 부활절 칸타타 연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현재 총 35명)은 각 파트별 전문 연주자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비전문)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합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앙상블 연주를 목표로 클래식 악기를 처음 배우는 유치원, 학생, 성인들로 구성된 광성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거룩한빛광성교회 창립기념 연주(23. 1. 8.)



♣ 부활절 칸타타(23. 4. 9.)



♣ 매주 토요일 합주 연습



♣ 광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아람음악당, 23. 10. 21. 예정)

24회 광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시

2023년 10월 21일 (토) 5:00 pm

장소

아람누리 아람 음악당



Program

1부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

Beethoven Coriolan Overture In C minor Op.62

광성 아카데미 / 광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보에 협주곡 (모짜르트)

Oboe Concerto (Mozart C Major K.314)

염유건 / 광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부

브람스 교향곡 4번

Brahms Sympony No.4

광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우나이 우레초 주비아가 Dr. Unai Urrecho Zubillaga

쇼팽대학교,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지휘), 폴란드

쇼팽대학교,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지휘에 대한 예술학 디플로마, 폴란드

수원대학교 관현악과 & 대학원 지휘과 교수





겨자씨.

2023 AUTUMN VOL.48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 2010년 1월 13일 통권 48호
등록번호 : 고양, 라00082
발행인 : 박승현
발행일 : 2023년 10월 6일
인쇄 : 천광인쇄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 031-929-3347
중고등부 취재기자 : 이하음, 최아인
청년부 취재기자 : 조희성
장년부 취재기자 : 김용기, 김은숙, 강혜미, 전영숙, 김형수, 정은숙, 우주희
사진 : 이용주
편집 : 김형수
책임편집 : 조희경, 강혜미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 전영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운정역 창고 스튜디오

www.1takestdo.com 문의 전화 : 010-5873-4589



2023년 1월 1일 오픈

영화, 드라마, 광고, 창고 형 세트장



A동

40평 파출소

파출소 / 지구대(완벽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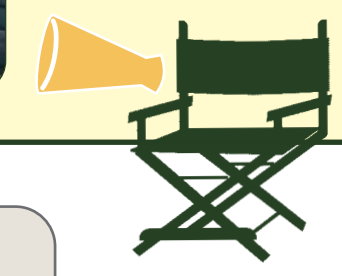
B동

60평 자유 연출 공간

이동식 벽 활용
총 5가지 콘셉트 방 연출 가능



분장 / 대기실



오시는 길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573-2
운정역 900m, 야당역 1.5km

원테이크 스튜디오

OPEN EVENT 시간당

30만원->18만원

2022.12부터 ~ 2023.2월 말 까지

기본 3시간 데크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인 특별 추가 할인



사업자 대표 : 이로운 | 사업자 등록번호 : 896-19-01625

일산농협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2023년 7월 준공완료!

농산물 유통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농가 소득 증대를 획기적으로 도모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일산농협을 만들겠습니다.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개요

개요	▶ 2023.07.31 준공 ◀
	1) 건축연면적 : 1,464평
	2) 부지면적 : 2,922평
	3) 용도 : 판매시설
	4) 위치 : 장항동 565-6 외

일산농협 자체 브랜드 '일산팜'

일산농협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안심
농산물 브랜드 입니다. (상표등록 : 제40-18155891호)

농산물 소비 트렌드와 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www.ilsanfarm.com)



■ 본점 031)975-80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 풍산지점 031)906-3234 ■ 산들지점 031)977-6540 ■ 마두역지점 031)903-6251 ■ 자유로지점 031)906-8161 ■ 양지지점 031)922-4381 ■ 강촌지점 031)932-8061
 ■ 정발산역지점 031)908-8061 ■ 백석역지점 031)904-8061 ■ 탄현지점 031)912-8061 ■ 풍동지점 031)907-8071 ■ 탄현북지점 031)916-8061 ■ 풍산역지점 031)977-8062
 ■ 킨텍스역지점 031)918-8061 ■ 영농지원센터 031)907-0252 ■ 농기계서비스종합지원센터 031)904-0253 ■ 쌀 판매장 1599-8061 ■ 로컬푸드풍산점 031)906-3666
 ■ 로컬푸드일산점 031)975-8322 ■ 로컬푸드장항점 031)907-8161 ■ 로컬푸드킨텍스역점 031)918-8161 ■ 로컬푸드:APC 추진사업소 031)907-8161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031)975-8701